

“이란, 공해상 선박 납치 극악무도… 세계 무역 위협”

단독 인터뷰 ‘도릿 헤르스코비츠’ 이스라엘 외교부 부대변인

이란이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나포한 사태와 관련해 이란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첫 입장을 내놨다.

10일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의 서면 질의에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인질 납치’, ‘범죄 조직’ 등의 표현을 쓰며 이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릿 헤르스코비츠 이스라엘 외교부 부대변인은 우선 이번 사건을 “테러와 불안감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시도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공해상에서 선박을 인질로 납치하는 등 이란은 이들에게 지난 며칠간 극악무도한 대접을 했다”며 “범죄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무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이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부분은 억류된 선박 측도 언급한 부분으로, 향후 국제법 위반 여부에 있어 이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잇속 쟁기려 테러·불안감 조장 앞으로도 범죄 행위 안 멈출 것 전 세계가 응당한 조치 나서야”

또 헤르스코비츠 부대변인은 “전 세계는 이에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이스라엘은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다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응할 의사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핵을 억지할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손잡으면서 지난 4년간 중동의 패권 지형에도 변화가 일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다자간 핵 합의를 탈퇴하고 전 세계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자금을 동결하면서 궁지에 몰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돼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린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와 3국 간 평화 외교협정(아브라함 협정)을 맺는 등 중동 내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군사시설 공습, 국경 폭탄 설치 등 군사적 대치를 벌여왔고, 선박 나포 직전에 이란이 핵 개발을 위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했을 때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이란에는 협상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파견된 상태다. 10일 새벽에는 최종건의 교부 1차관도 이란으로 출국해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포 직후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이 “인질범은 우리 돈 70억 달러

(약 7조6440억 원)를 쥐고 있는 한국 정부”라고 밝히며 한국 내 동결된 자국 자금 문제가 협상 안건임을 시사했지만, 이후 자금 활용처로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결정을 취소하면서 협상의 향방도 안갯속이다.

나아가 이란의 행동이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와는 핵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으로도 분석되는 만큼 단지 한국과 이란 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스라엘 외교부의 이번 입장은 선박 나포 이후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반응으로, 나포 문제가 중동 간 갈등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5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걸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UAE로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혁명수비대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해 자국 검찰과 해양환경청의 인도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선박 측은 해양 오염은 사실이 아니며 나포된 위치도 공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최대 300만원 지급

전 세계 확진자 9000만명… 韓, 사흘째 600명대

홍남기 “4차 지원금 논의 시기상조… 선별지원 바람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원에 대한 퇴로는 열아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에 대해선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4차 재난지원금,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애초 선별 지원을 주장하다가 여당의 압박에 전 국민 지원으로 180도 바

뀌면서 경제 수장으로서는 입지가 좁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질문에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1차의 경험으로 전 국민 지급에 대해 퇴로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총 580만 명)을 대상으로 9조3000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정부·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100만~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90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 인구의 약 1.2%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내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장기화로 확진환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주와 유럽에선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9면

글로벌 통계웹 월드오미터는 10일 오후 2시(한국시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008만45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폐렴 집단발생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6월 27일 1000만 명을 넘어서고, 8월 9일

2000만 명, 9월 17일 3000만 명을 각각 넘어섰다. 이후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져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 늘어나는 데 걸린 기간이 32일, 21일, 16일로 단축됐다. 5000만 명을 넘어선 뒤엔 보름마다 확진자가 1000만 명씩 불어나는 상황이다.

그나마 한국의 확산세는 해가 바뀌면서 잦아들고 있다. 지난해 말 1000명 안팎을 오가던 국내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8일 이후 사흘째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는 6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6만8664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631명, 해외유입은 34명이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은 줄었으나, 일상 속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능력티켓 한장으로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적자원개발사업 모두 체험 가능!

인적자원개발 0789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든 사업



Q-Net



일학습병행
WORLD CIVIL FRANCHISE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WORLDJOB+



TV WORK NET
한국식업방송



청년취업아카데미

흑한에 가스비도 못 내는데… “자격 안된다” 모진 말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사각지대 여전

‘폐업·실직’ 생활고 놓인 서민에 위기극복 생계비·취업 지원
“조건·지급횟수 등 한계…제도 재정보로 극단적 선택 막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서민들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하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자살예방센터 예산도 늘렸다. 생활고는 물론 다양한 요인으로 극단적 선택이라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방안이다.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는 꾸준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경제적 위기가 ‘삶’ 좌우=극단적 선택 심리는 경제적 위기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망자 수는 2017년 3111명, 2018년 3390명, 2019년 356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도 높았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개년(2013~2017년) 서울특별시 자살 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험료 하위 구간(1~6분위)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각각 38.2명, 24.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료 중위(7~13분위) 구간과 상위(14~20위) 구간의 극단적 선택 비율은 19.3명, 14.8명이었다.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로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경우 극단적 선택 비율(66.4명)이 가장 높았다.

◇긴급복지 문턱 낮춰…“위기 넘겨”=서울

형 긴급복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시작했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득기준을 기존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완화된 기준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었다는 김모(55) 씨는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둘 다 실직해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다행히 위기를 넘겼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연계해줬다”고 말했다.

연극배우 신모(42) 씨는 “집 담보대출도 있어서 수입은 없는데 매달 50만 원 이상 빠져나갔다”며 “통장 잔액이 없어 걱정이었지만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 70만 원을 지원받아 급한 불을 껐다”고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2021년 6월 30일까지)

변경 전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억57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재산기준 3억2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사례회의로 이전한 경우 세부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지원 (실직 등의 경우 1개월 경과 조건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	지원횟수 제한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서울시는 시민들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예산을 늘렸다. 2018년 23억 원이던 예산은 2019년 25억 원, 2020년에는 31억 원으로 증가했다. 생명문화버스, 생명존중 콘서트, 힐링프로젝트 등 자살 예방 활동도 다양화했다. 위기 대응체계, 주민밀착형 예방 전달체계를 구축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계속 줄여야=개선해야 할 과제는 쌓여 있다. 현행 복지체계가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에도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북구에 사는 최모(43) 씨는 “가스비와 대출 이자가 3개월이나 밀려 긴급복지를 신청하러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조건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신청을 해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긴

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을 주지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선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도 문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장기화되지만 일회성에 끝나는 지원이 많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한 번의 지원만으론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해야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회안전망 대책’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먼저 찾아야

단발성 공공부조, 중장기 체계로 ‘실시간 소득파악’ 능동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로 인한 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재검점하고 ‘먹고사니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공공부조’가 미비하고, 자격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질적 문제로 꼽는다. 보장수준도 낮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단발성에 그쳐 ‘땀집식 처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몇 달 내지는 1년에 이르는 장기적 사회보장제도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 상실을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직업연계 시스템’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나서 직원이 회사를 관두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고용 연계를 위해서는 개인이 나서야 했지만 기업이 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원

치 않은 휴직 기간에도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을 빠르게 분류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연계(RTI) 시스템의 소득데이터로 모든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가 마련되면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위기를 감지해 정부가 조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복지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갑자기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면서 실시간 소득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정부가 추진 하고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오늘날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슬픈 자화상”이라며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상황에 맞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생활고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혁신과 진정

Shinhan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진심을 품은 종신보험

(무배당,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료는 건강나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닮은 진심만 담다!

건강나이특약 배타적 사용권

• 건강나이보험료특별혜택이란? 최보험자가 고지한 건강진진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산출보험료를 통하여 건강나이를 선정하고, 건강나이에 적용된 추가적 계약제출일 기준으로 추가적 보험료를 재산출하는 제도성 혜택입니다. • 이 상품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30%형 및 50%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앞연월 100%형의 해지환급금 대신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앞연월(10%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일반인(일반보험금)은 고액의 사고 및 죽은 이후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안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권리의 모든 배당금에 대한 금융감독의 해지환급금 또는 한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해지급금을 합하여 인정 “최고 보장액”이며,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합한다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요약본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생존보험일시 상여금 제2020-2091호(2020.08.29)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보험 신한생명

“금리·코로나, 최대 변수... 기업 펀더멘털 키워야”

3000 고지 안착하려면

코스피가 어디까지 달려갈까. 장밋빛 전망이 거품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 잔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폭증한 국가 부채 탓에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단기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시장 충격도 무뎠다. 적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다. 기업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 2000년 초반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는 주장 등이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다만,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금리가 급등한다면 시장도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을 시장 변수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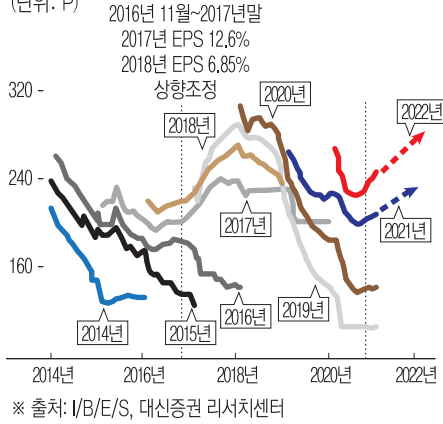
◇경기 회복 기대감에 신년밸리=8일 코스피는 무려 120.50포인트(3.97%) 폭등했다. 마감지수는 3152.18. 지난해 3월 24일(127.51포인트, 8.60%)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증시 과열 지표인 버핏 지수(증시 시가총액/명목 GDP)는 코스피 기준 108.7%를 가리켰다. 보통 버핏 지수가 70~80%이면 저평가로, 100%를 넘어서면 과열 신호로 해석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면서 주식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며 “전통적으로 증시 과열을 판단하는 버핏 지수는 과열을 가리키고 있지만 고립공포감(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반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경기 회복 기대감을 근거로 든다. 자동차, 화학 등 경기민감업종의 이익 상승세도 이어지고, 기저효과 영향이 큰 조선, 디스플레이, 호텔, 에너지 등도 뒷받침해준다는 설명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수출이나 미국 ISM 제조업지수 등 핵심 지표는 전월보다 개선되면서 경기 자신감이

이익전망 상향조정 사이클에 진입한 코스피 2017년보다 강한 이익전망 상향조정 기대



자동차 등 주요업종 실적 개선세 코로나 백신 기대감 등 호재 작용 전문가들 “당분간은 유동성 장세”

규제개혁 통해 기업 활동 길 열고 혁신·성장기업 상장 기회 넓혀야

붙었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도 여전하다”며 “개인이나 기관이 번갈아 주식을 사고 있기에 코스피는 한 단계 더 높은 고지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전문가는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는 데 의견이 같았다. 현금화가 용이한 자금을 포함하는 시중통화량 M2 대비 국내증시의 시가총액은 76% 수준으로 금융 위기 직전(90%)보다 낮아 우려가 앞설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한대훈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제자리였던 코스피가 그동안 M2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기업들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 진입했다”며 “단기과열은 맞지만, 아직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다.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 규제 개혁, 증시 저변 넓히는 열쇠 =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코스피 3000시대’를 위해선 한국 증시의 투자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장주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기업 생태계에도

12개월 선행 EPS는 역사적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자금을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에선 기업이 유망 산업에 뛰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 실적 개선이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쏠려 있어 외부 변수로 인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증시 자체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상위 10개 종목의 업종은 반도체와 화학, IT, 자동차, 바이오 등에 편중돼 있다.

한국거래소도 더 많은 혁신·성장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구상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에도 상장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장평가와 성장성 중심으로 증시 진입 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BDC(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제도 강화한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제도 지원은 여전히 더디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주요 ‘산업 생태계 혁신’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이슈·테마 따라 움직이는 개미 한방 노린 투자 문화 바뀌어야”

장기투자 면세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코스피지수가 ‘꿈의 지수’라 불리는 3000포인트대에 올라섰다. 지난해 대거 유입된 개인투자자들의 힘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여기는 투자문화가 개선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뛰어들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밀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3552만 개로 집계됐다. 정확한 주식 투자 인구는 3월 한국예탁결제원이 모든 상장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활동계좌수의 5분의 1 정도인 700만 명 수준으로 추산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유입과 함께 막대한 유동성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뒤지지 않는 힘을 키웠지만 투자 문화는 수년 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일례로 테마와 이슈만 따라다니는 투자 행태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초 SK바이오팜이 상장 전 개발한 뇌전증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당시 계열사이던 SK바이오랜드(현 현대바이오랜드) 주가가 급등했다. 별다른 연관성도 없는 회사였지만 사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뛴 것이다.

테마주는 더 하다. 특정 정치인과 출신 지역이 비슷하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출렁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는 이슈만으로 방산주들의 주가가 들쭉인다. 거론되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를 수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모를 리 없다. 하지만 하찮은 이유라도 주가가 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증시 문화의 단면이다.

투자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주식은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투자하는 회사의 가치나 미래성을 모르고 투자할수록 위험성도 높다. 초보 투자자들을 노리는 불법 업체들도 넘쳐난다. 불법 사설 리딩 업체에 얽혀 투자자가 거액을 날리는 경우도 흔하다.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의 투자자는 하락 종목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증시의 속성이다. 해법은 결국 가치투자가 막무가내 투자보다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자금이 상장사에 들어가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도록 장기 투자자에 대한 면세 혜택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치 투자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증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도박에 가까운 지금의 투자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잡지인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21. 01 VOL.173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가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역적 박신' 만들기
PART3. P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전통 정원의 멋
김주목 화가
오직 '나'와 '독대'하고 싶어 지는 집

슬기로운 연금생활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토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퇴직금은 10년 전까지만 납입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도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재미있는 **성 인문학** 시사잡지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해서 유행이다. 그런데 정말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행'이라 표기하는데 어떤 행을 어떻게 표현을 찾았는지 놀라기까지 하다. 성은 그 사람의 본성을 뜻한다. 배정원의 성 인문학은 역사, 예술, 사회 등

라며,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명동답거나 예피소드 시간을 뒤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자라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마당입니다.

50+ 워라벨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약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사용설명서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증시와 동행하는 부동산… 상승장세 집값 끌어올리나

부동산 시장 영향은

‘코스피 3000시대’를 맞아 주식 시장 강세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연구와 실제 추세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주가 시장과 함께 오르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등 거시경제 변화에 유사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 모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급증했다.

◇코스피·부동산 시장 상관관계 높아… 유동성 시장에 ‘고공행진’=과거 연구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 부동산과 주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한국은 부동산이 주가에 선행한다”며 “일반적으로 가계 보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투자 여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부동산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고 선행성까지 갖고 있었다”며 “한국 주택가격과 코스피 간 상관계수는 0.91”이라고 밝혔다.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더 크다.

지난해 전국 부동산시장은 유례없는 집

주택가격·코스피 상관계수 0.91

부동산 가격 변동, 주가에 선행

“경기 하락 땐 헤지 역할 어려워 자산 배분 시 유의해야” 의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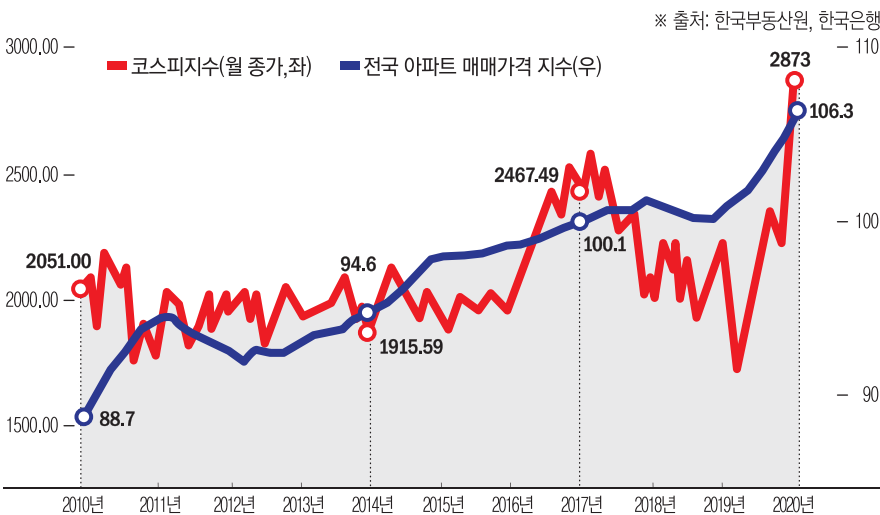
과세 확대 등 집값 추가상승 부담 개인투자자 증시로 더 몰릴 수도

값 고공행진이 계속됐다. 지난달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19년 말과 비교해 8.35% 상승했다. 이는 2006년 11.6% 상승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기록됐다. 지난해 집값은 1~6월 0.14~0.48%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다가 7월 0.88%로 두 배가량 올랐다. 이후 8~9월 각각 0.78%, 0.80%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11월 1.43%, 12월 1.36%로 급증했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집값보다 약 두 달 늦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급증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1457까지 떨어진 뒤 5월 이후 2000선을 회복했다. 11월까지 2600선으로 오르는 데 그쳤지만 12월 20일 이후 2700선에서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 1월 8일 500포인트(P) 이상 오른 3152를 기록했다. 부

코스피지수·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12월 기준, 기간: 2010년 12월~2020년 12월,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기준: 2017년 11월=100)



동산시장과 주식시장 간 높은 상관관계는 물론 선행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두 시장 간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자산 배분 시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배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미래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두 시장 사

이의 상관계수는 상승해 서로 헤지(위험 회피)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역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 활황이 예상된다.

◇부동산 추가 상승 부담도… “주식으로 자금 유입”=다만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한 차례 급등했고 올해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 등 규제로 추가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5일 올해 코스피 추가 상승요인으로 개인투자자가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으로 더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는 “부동산 투자 매력 감소로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서울 지역 아파트는 안정적인 가격 상승 지속으로 투자자산으로 꾸준히 선호됐지만, 대출 규제와 과세 확대로 보유에 따른 실익이 감소했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식과 부동산시장은 장기 시계열로 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단위가 다르고 일반적으로 주식의 투자금액이 더 적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투자자가 주식으로 불린 돈을 이용해 ‘자산 균이기’를 위한 아파트 매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용대출 재개 나흘 만에 4500억 폭증 연초부터 ‘빚투’ 과열 조짐

금융당국 예의주시

시중 은행들이 연초 신용대출 빚장을 풀자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규제와 은행들의 대출 중단이 겹치면서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패닉(공황) 대출’과 연초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빚이라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려는 ‘빚투’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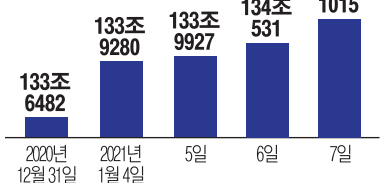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4~7일 나흘간 4533억 원 증가했다. 연말까지 중단했던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재개한 첫날인 4일 하루에만 2798억 원 늘었다. 연말 성과급 등으로 대출 수요가 비교적 적은 1월에 신용대출이 이처럼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연초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대출이 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제한’을 실시, 시중은행 육죄기에 나섰다. 당시 은행들이 대출 축소와 중단 등 대책을 내놓기 전 ‘막차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폭증하기도 했다. 대출이 폭증하자 다시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와 은행들의 대출 축소가 이어지는 구조가 되풀이됐다.

막혔던 신용대출이 다시 풀렸지만, 대출 규모가 예년만큼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아직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추이

(단위: 억 원)
※ 지난해 말 대비 4533억 원 증가
※ 각 은행 자료 취합



중단은 재발할 수 있다.

실제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회에서 “대출 총량 규제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모든 차주에 대해 소득과 전제 대출 원리금을 계산해 추가 대출 여력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제 비율도 올해 1분기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000을 뚫고 오르며 주식시장이 연일 달아오르고 있는 것도 대출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증시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신용대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가 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53조 2000억 원)과 국내의 주식·펀드에 투자한 금액(30조 7000억 원)은 나란히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대출 규제와 대출 폭증, 대출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연초 대출이 재개되자마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두자는 심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호황기를 맞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빚투 수요까지 몰리면서 연초부터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0% (아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텍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분열·혐오에 망가진 美… 트럼프의 ‘바나나 공화국’

“역겹고 가슴 아픈 광경이다. 선거 결과에 이런 식으로 이익을 제기하는 것은 ‘바나나 공화국’에나 있을 일이지, 우리의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있을 일이 아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일어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두고 이렇게 한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 회의가 광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의 점거로 긴급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한때 글로벌 민주주의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미국을 ‘바나나 공화국’에 빗대어 비아냥대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잇따랐다. 친트럼프계로 알려진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도 “우리는 지금 바나나 공화국에서나 볼 법한 쓰레기 같은 일을 미국

의사당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으며, 공화당 소속의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작년 1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에 대해 “우리는 선거와 관련해 가장 존경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바나나 공화국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바나나 공화국이란 표현은 작가 오 헨리가 1904년 펴낸 단편집 ‘양배추와 임금님’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겉은 그럴듯하지만 쉽게 썩는 바나나의 성질에 빗댄 말이다. 바나나와 같이 한정된 1차 상품에 절대적으로 의존

부패정치 후진국 빚낸 ‘바나나 공화국’ 정치권 “미국이 다들 게 뭐냐” 자조
트럼프 선동정치, 사태 원인으로 지목
“바이든 정권, 공정한 美 위상회복을”

해 외국 자본에 예속된 국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됐다. 냉전 시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그레나다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온두라스의 경우 중앙아메리카 7개국 중에서 나카라과 다음으로 국토 면적이 크지만, 경제적으로는 2007년 전체 수출에서 바나나

가 65%를 차지할 정도로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했다. 현재 이 단어는 경제적 대외 의존도가 극심한 것은 물론, 부패 정치나 독재 등 정치적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후진국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국가였다. 정치적으로는 세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할 만한 모범으로 여겼고, 경제적으로는 명실공히 글로벌 1위 경제 대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와 지지자들의 과격하고도 폭력적인 행동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입혔고,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상을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미국 온라인매체 복스는 “양당제에서 민주주의는 두 정당이 모두 선거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데 달렸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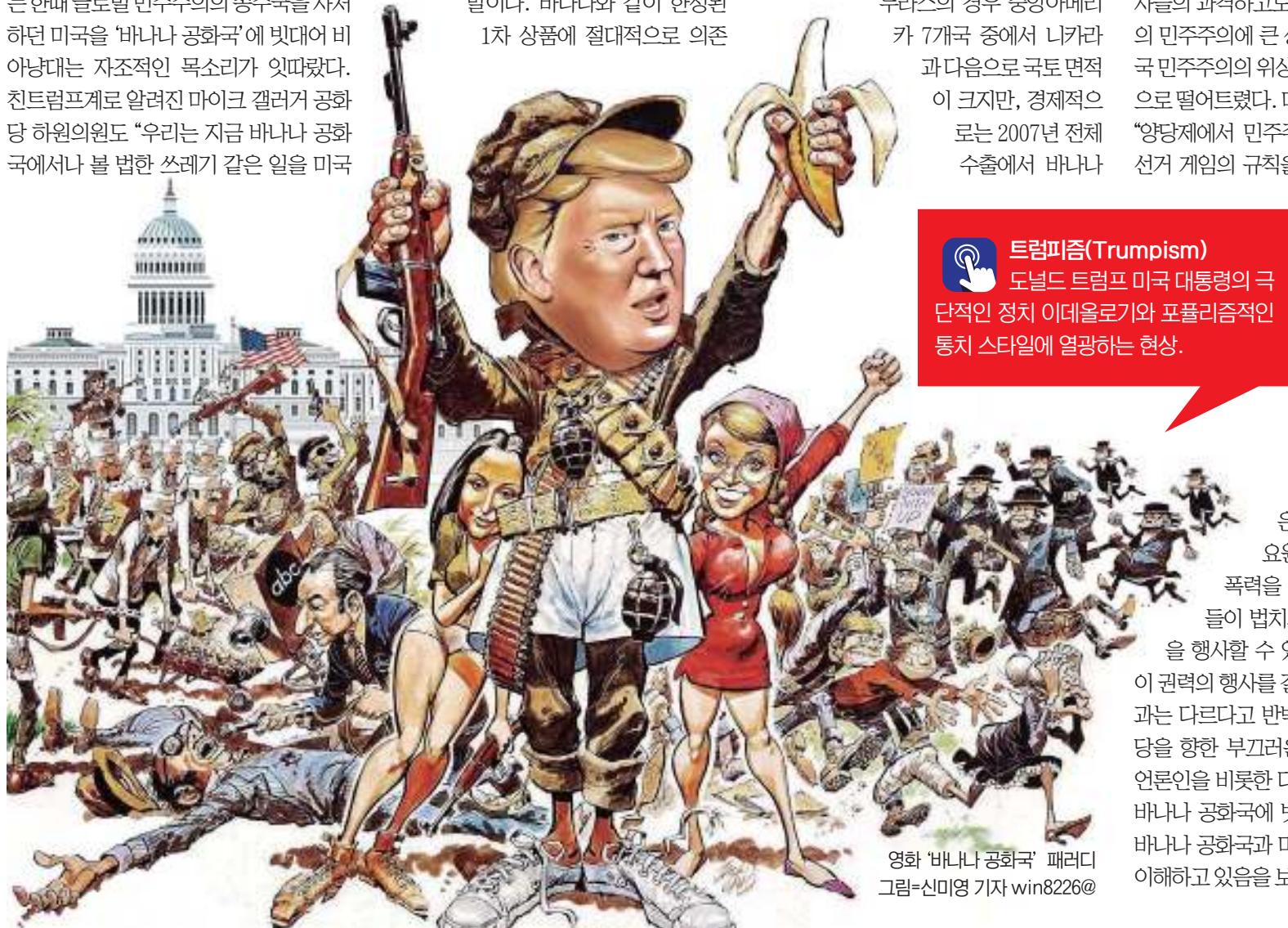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취임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에서는 법 집행 요원들이 결국 군중들의 폭력을 진압했으며, 국민 대표들이 법치의 원칙에 부합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군중의 폭력이 권력의 행사를 결정하는 바나나 공화국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당을 향한 부끄러운 공격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을 비롯한 다수 저명인사가 미국을 바나나 공화국에 빗댔다”며 “이런 비방은 바나나 공화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미국에 걸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나라로 떨어진 미국 민주주의의 위신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는 점만큼은 명확해 보인다.

다수의 언론은 이러한 사태의 원흉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원인을 단순히 트럼프 1인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좌고우면하는 기성 정치인들과 달리 화끈하고 직설적인 화법과 능숙한 쇼맨십을 자랑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누구보다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 4년간 술한 거짓말과 막무가내식 행보,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2016년 당선 때보다 이번 대선에서 1000만 표나 더 많은 표를 획득한 것이 그의 인기를 방증한다. 그리고 강력한 팬덤을 토대로 한 그의 선동 정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그의 꿈을 정반대로 몰고 갔다.

미국 퍼듀대학 영어영문학과 부교수이자 페미니스트 작가인 루산 게이는 새로 집권하는 민주당에 희망을 걸고 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을 통해 “만약 민주당이 그들이 축적한 권력을 과감하게 사용한다면 ‘용감한 새로운 세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민주당이 공화당 유권자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자신들의 권력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법을 제정할 때”라며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이 나라의 영혼을 위해 많은 싸움을 견뎌 왔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나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와 제117대 의회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트럼프 떠나도 트럼프즘은 남는다”

국제화·도시화에 밀려난 백인 저소득층의 분노 ‘우익 포퓰리즘’ 여전

‘트럼프즘’이 결국 종교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던 이들이 광신도가 돼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에까지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가 이처럼 극우 유권자들의 우상이 되어 버린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부동산 재벌이자 유명 TV 쇼 진행자였지만,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던 트럼프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의 수장이 됐는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부분의 사람이 트럼프를 광대와 쇼맨, 기회주의자와 가짜 보수주의자, 권력과 관심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인사로 묘사했다”며 “그러나 그의 대표적인 공약과 정책 중 많은 것들은 미국 역사에서 뿌리가 깊은 이념들, 즉 포퓰리즘과 국가주의, 권위주의로 귀결된다. 이제는 트럼프즘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그린버그 러거스대 역사학 교수는 “국제화와 도시화에 대한 백인들의 반발로 대표되는 20세기 초 우익 포퓰리즘이 트럼프즘의 분명한 기원”이라며 “우익 포퓰리즘의 역사는 오래됐

지만 백악관에 입성할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익 포퓰리즘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1920~1930년대 미국에서 강력한 세력이었지만, 뉴딜의 성공과 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군 승리, 고립주의에 선을 그은 온건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등장 등으로 힘을 잃었다.

그러나 그린버그 교수는 멸종 위기에 처했던 우익 포퓰리즘이 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로 살아났다고 봤다. 이라크 전쟁으로 공화당의 매파적 외교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가 약화했으며 2008년 경제 봉기는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사회가 다인종, 다국어 사회로 전환하면서 백인 사이에서 인종우월주의가 다시 힘을 크게 받았다. 그린버그는 “트럼프는 기회주의적인 쇼맨일 뿐만 아니라 일관적인 이념의 지도자일 수 있다”며 “1930년대 이후 처음으로 우익 포퓰리즘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통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 (미국의 앞날이) 이보다 더 불길할 수 없다”

고 우려했다.

결국 그린버그의 불길한 예언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으로 현실이 됐다. 역사학자들은 1814년 미-영전쟁 당시 영국군이 의회의사당에 불을 지른 이후 2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뒤흔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뿌리 깊은 양당제도 트럼프즘이라는 괴물이 나온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는 “트럼프의 부패하면서도 국가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정책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미국의 양당 정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트럼프는 억압받는 약자를 위해 워싱턴의 엘리트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로 유권자에게 호소했다”며 “50년간 정치에 몸담아온 조 바이든은 그런 엘리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사라지더라도 트럼프즘은 계속될 것”이라며 “트럼프즘을 탄생하게 했던 백인 저소득층의 불안과 분노, 좌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경종을 울렸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무려 7400만에 가까운 표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득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갈라진 ‘민심’·추락한 ‘국적’ 시험대 오른 ‘바이든 시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 사태에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앞날이 어두워졌다. 바이든은 국제 사회에서 추락한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극에 달한 미국 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게 됐다.

취임식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커다란 약재다. 민주주의적 해결 방안을 넘어서 미국의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의 품격을 강요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폭동 당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의회에 난입한 지지자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폭도, 반란자, 국내 테러리스트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너진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기 전 “우리는 더 단합해야 한다”며 “나는 의회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일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핵심 공화당 의원들은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섰지만, 의회 난입 사태를 기점으로 등을 돌렸다. 펜스 부통령은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정한 후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대비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8일 델라웨어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월빙턴/AP연합뉴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깨겠다는 국제 리더십 회복을 천명했지만, 이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등으로 국제 사회 협력 수준을 높일 수는 있어도 위상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선거제도를 수정해 민주주의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번 대선이 대규모 선거 사기가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런데도 그가 이번 대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표를 얻은 것은 미국인들이 가진 선거에 대한 신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은 미국 민주주의의 약점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며 “민주주의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전면적인 (선거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혜림 기자 rog@**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요!

우리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편 >



울주군 근교 럭셔리 캠핑 명소
(주)글램핑몽블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죽강리 | 010-3676-7790



40년 전통의 장어 전문점
대가유노잇집

거제시 고현동 305호 고현시장 주차장앞 | 055-634-6000



고당도 꿀맛 과일 가게
과일나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5-1 | 055-231-9644



장안정신으로 기술자가 직접 시공
부영전업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중평로 204 | 052-262-9004



한번에 즐기는 호박오리찜과 샤브
호박오리

전주시 대산로475번길 16-20 | 055-762-7707



함안군 지정 모범 식당
맛고을한우마당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997-1 | 055-583-2684



울산 최대 다육이 도소매점
삼춘다육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872-5 | 010-4802-0133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꽃배달 전문점
영남꽃집

전주시 후석로 204 | 055-743-1188



국산 팍으로 직접 삶은 맛집
나들목팍빙수단팍죽

말양시 내이동 1044-6, 1층 | 055-354-4176

美 전시장에만 공개되던 신기술, 집에서 관람한다



LG디스플레이 등 기업 대상 비공개 전시도 일반에 개방
韓 참가업체 美 다음으로 많아...GS칼텍스·만도 첫 참가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는 전 세계 대표 기업들이 모여 첨단 산업 트렌드를 제시하는 행사다. 많은 기업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현장을 찾지만, 한눈에 트렌드를 보는 건 쉽지 않다. 그만큼 전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현지시간으로 11일부터 열리는 올해 CES 2021이 55년 만에 온라

인으로 개최되면서, 행사를 직접 관람할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ES가 온라인으로 열리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업체들의 신제품 및 신기술을 직접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올해는 지난해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했던 중국의 참여가 204개로 크

게 주는 등 지난해보다 전체 참여 기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40개 기업이 참여하며 미국(567)의 뒤를 이어 참가기업 수 2위에 올랐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온라인 전시회인 이번 기회를 통해 신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GS칼텍스는 CES에 처음 참가해 드론

배송과 미래형 주유소를 선보인다. 3편의 영상을 통해 주유소 거점 드론 배송을 비롯해 미래형 주유소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 CES에서 고객사에 한정된 비공개 전시를 개최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도 전시관을 공개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 역시 CES 2021에 처음 참가해 CES 혁신상을 받은 '자유 장착형 첨단 운전 시스템'(SbW)을 선보인다. 만도가 개발한 SbW는 자동차의 새시와 운전대를 전기 신호로 연결하는

기술로, 운전대를 필요할 때 서랍처럼 꺼내 쓸 수 있다. 이 밖에 국내외 많은 중견·스타트업들이 저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기술을 온라인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CES 현장을 가는 것도 큰 비용으로 부담스럽지만, 막상 가더라도 너무 넓은 전시장 탓에 다 둘러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라며 "이번 온라인 CES는 관심있는 일반인까지도 낮은 부담으로 많은 기업의 신기술을 직접 경험할 기회"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GM '공룡의 변신'...K헬스케어 역습

국내외 주목할 기업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온라인 CES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의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 CES의 핵심 키워드로는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헬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이 꼽힌다.

먼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개막 분위기를 띄운다. 첫 연설 주자로 나선 한스 베스트베리(왼쪽) 버라이즌 CEO와 메리 바라 GM CEO.



기조연설을 맡은 한스 베스트베리(왼쪽) 버라이즌 CEO와 메리 바라 GM CEO.

5G 통신·모빌리티 전환 가속
전통·신생 기업의 대응책 주목

한국 가전 아성에 중화권 도전
삼성 '외계인 뽀치는 기술' 자신

디지털헬스, 韓 스타트업 두각
집에서 눈·폐기능·심전도 체크

'CES의 꽃'으로 꼽히는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는 단연 TV 시장에 관한 관심이 높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실상 글로벌 투톱체제로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중화권 업체들의 도전을 눈여겨볼 만하다.

중화권 TV 업체들은 LCD(액정표시장치) TV 패널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다음 스텝으로 프리미엄 TV 시장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 BOE는 국제 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2020에서 QD-OLED(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 시제품을 공개했고, TCL은 미니 LED(발광다이오드) TV를 출시했다. QD-OLED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중국 업체의 진입 여부 역시 이번

CES 2021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분야에선 국내 기업 네오사피언스가 AI 연기자 서비스를 시연한다. 이 회사는 감정표현이 가능한 음성 합성 원천 기술을 통해 AI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Typecast)'를 제공하고 있다. 타입캐스트는 전문 성우들의 목소리 녹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성과 목소리를 가진 AI 성우의 음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60여 종 이상의 음성을 콘텐츠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고 캐스팅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문장 맥락 파악과 감정 표현, 운율 조절 등 정교한 감정까지 제어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최근 화제가 된 MBC 스페셜 특집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 세상을 일찍 떠난 딸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 70주년을 기념해 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재탄생 시키는 등 오디오 복원 기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의 원격 의료와 홈트레이닝 등 '디지털 헬스'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폐 건강관리 IoT 솔루션 '볼로(BULO)', '눈 건강 헬스케어 솔루션 'VROR Eye Dr', 심전도 검사기 'AT-Patch' 등의 한국제품들은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브레싱스의 볼로는 폐활량 측정과 호흡 운동이 가능한 제품이다. 제품을 입에 대고 한 번만 불어주면 폐활량, 폐 나이, 호흡근 세기, 지구력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엠투에스의 VROR Eye Dr는 가상 현실(VR)을 이용한 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밖에 네이버, 코웨이, 한글과컴퓨



1 삼성전자의 CES 2021 트레일러 영상. 누리꾼들 사이에 도는 '삼성전자가 외계인을 납치해 기술을 가져온다'는 우스갯소리를 유쾌하게 표현했다. 2 폐 건강관리 IoT 솔루션 '볼로(BULO)'. 3 눈 건강 솔루션 'VROR Eye Dr'. 코로나 시대 트렌드로 자리잡은 국내 디지털 헬스 제품들이 잇따라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4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 개발사인 한국기업 네오사피언스는 백범 김구 목소리 등 오디오 복원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각 사

터그룹, 나무기술, 포티투마루 등도 AI, IoT, 로봇, 모빌리티 등 기술을 선보인다. 서울특별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성남산업진흥원(SNIP)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한국 전시 참

가자로 이름을 올려 미래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창업기업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K-스타트업관'도 운영한다. 총 97개 참가 기업들의 분야는 건강·웰니스(24개사), 5G·IoT(24개사), 로봇·인공지능(15개사) 등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관람 계정 발급에 54만원, 기업 홈페이지 공짜

온라인 무료 관람 Tip

LG·소니 등 개별 전시관 운영
24시간 접속으로 비대면 극복

사상 처음으로 맞는 온라인 CES를 앞두고, 전자업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사이에선 역설적으로 더 많은 기업의 제품 소개 및 전시를 무료로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기업들은 행사장에서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개했지만,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제품 정보를 제약 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힌 곳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량을 늘려 상대적으로 생동감이 떨어지는 온라인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LG전자는 11일 온라인 전시관을 오픈하고 혁신적인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LG전자

10일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CES 관람을 원하는 이들은 499달러(약 54만 원)를 내고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달 4일 전까지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 '얼리 버드'(Early birds) 혜택

을 받아 149달러(약 16만원)에 등록할 수 있었다. 매년 CES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 비용, 현지 체류비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CES를 관람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일부 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자사의 제품 소개 콘퍼런스 및 주요 연사의 기조연설 등을 생중계한다. 주요 제품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공개하는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LG전자는 소비자들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와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LG전자 사이트에 3D 가상 전시관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 플랫폼을 운영한다. 해당 플랫폼에선 인터넷 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24시간 내내 신제품 뉴스, 다큐멘터리, 라이프 스타일쇼, 제품 리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진다.

LG전자는 앞서 지난해 9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때도 이 같은 방식의 가상 전시관을 별도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 CES에선 두 번째 가상전시관을 여는 것이니만큼 IFA 때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온라인 전시기법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대표 가전기업 소니 역시 무료 디지털 이벤트 플랫폼인 '소니 스키퍼'를 통해 CES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CES에 참여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은 단순 자료 공개를 넘어, 전문가 대담과 전시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이 꾸리는 '서울관'에는 올해 서울 소재 15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별도 홈페이지에서 △기업 솔루션을 소개하는 웨비나 'CES 2021 서울 트레일러' (6~8일) △전문가 대담과 기업의 글로벌 피칭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라이브 CES 서울' (11~14일) △CES 2021을 종합 분석하는 '리뷰 CES 서울' (26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이브 CES 서울'에선 서정형 서울시장 권한대행, CES를 주최하는 CTA 게리 사피로 회장 등이 직접 대담에 나선다. 노우리 기자 wei1228@

美 입맛 사로잡은 즉석밥... 쌀가공품 수출 '역대 최고'

지난해 수출액 27% 증가... 한류 영향에 떡볶이 57% ↑
대미 수출액 전년보다 53% 상승... 전체의 40% 차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는 쌀가공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전년보다 27%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가공식품 수출액이 전년 보다 26.9% 증가한 1억376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018년 8930만 달러에서 2019년 1억840만 달러로 늘어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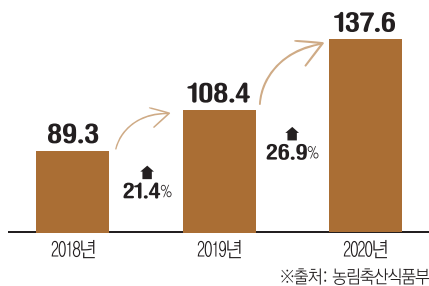
특히 지난해 쌀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간편식 수요가 늘면서 쌀가공식품 시장이 커진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 수출액은 한류 문화의 확산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 증가로 전년보다 56.7% 급증한 5380만 달러를 기록했다.

냉동볶음밥, 즉석밥 등 가공밥류의 수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시장 등에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면서 32.2% 늘어

쌀가공식품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난 4590만 달러를 나타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5530만 달러), 일본(1700만 달러), 베트남(1270만 달러), 중국(89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53.3% 상승해 전체

쌀가공식품 수출액의 40.2%를 차지했다.

지성훈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쌀가공식품의 수출 증가는 수요를 확대해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에 있는 쌀가공식품 수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 중이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공용 쌀에 대한 특별공급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31만7000톤을 공급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안철수·오세훈 이번주 회동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예고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야권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다만,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양측에 따르면 늦어도 금주 중에는 비공개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 측은 언론에 “입당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겠지만, 만나자는 제안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오 전 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시한을 후보등록 개시 전일인 17일까지로 못 박았다. 안 대표의 입당 또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실패할 경우, 제1야당 후보로서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오 전 시장의 경우, 이를 통해 출마 명분을 쌓는다는 관측이다. 당 또한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당은 외부인사가 입당해 경선하면 예비경선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경선규칙과 관련해 본경선 당원 비율 ‘20%’를 전면 수정하고, 100% 시민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안 대표가 입당 의사를 밝

코로나, 시설 전파 줄고 일상생활 속 감염 늘어

방역조치 강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기존 감염경로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확진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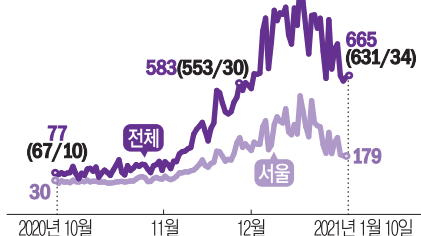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665명 증가한 6만86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631명, 해외유입은 34명이다. 국내발생에서 88명은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됐다.

12시(정오) 기준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가 13명 추가(누적 1193명)됐다.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도 격리자 추적검사서에서 9명이 추가 확진(누적 80명)됐다.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 충남 천안시 식품점·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각각 72명으로 8명, 142명으로 11명 늘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일 0시 기준(국내 / 해외유입)

※ 출처: 질병관리청



수원 일가족 관련 10명 추가 ‘확진자 접촉’ 통한 감염 39%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접촉자 추적검사를 통해 19명이 추가 확진(누적 46명)됐다. 울산 중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도 34명으로 21명 추가됐다.

신규 집단감염은 주로 일상생활을 경로로 이뤄졌다. 경기 수원시 일가족과 관련해선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에서 10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전남 보성군 김장 모임과 관련해선 7일 이후 총 10명이 확진됐다. 부산 지인모임·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총 14명의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최근 2주간(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10일)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 구분을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이 4633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감염이 2756명(23.4%)으로 뒤를 이었다. 2917명(24.7%)은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완치자는 1085명 늘어 누적 5만409명이 격리 해제됐다. 단 사망자도 1125명으로 25명 증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김용균 묘소 찾은 정의당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 씨의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KDI “제조업 회복세에도 서비스업 부진 심화”

‘경제동향 1월호’ 발간

투자 증가·수출 확대 이어질 듯
지난달 신용카드 사용 16.4%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제조업 개선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빠르게 재확산함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제조업에 대해선 “내구재 소비, 설비투자, 상품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

다. 부문별로 설비투자는 지난해 10월 0.9% 감소(이하 전년 동월 대비)에서 11월 5.7% 증가로 전환됐으며, 수출은 증가 폭이 11월 4.1%에서 12월 12.6%로 확대됐다. 소비에선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구재(12.8%)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로 6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KDI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하고 반도체 관련 지표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향후에도 제조업의 개선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망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11월 중순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 소비에선 의복 등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각각 12.9%,

4.2%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은 1.4%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마저 11월 중순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12월 신용카드 매출액(신한카드 추정)이 16.4% 급감했다. 전월(-4.2%)과 비교해선 감소 폭이 12.2%포인트(P)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97.9)보다 8.1P 하락한 89.8을 기록하며 빠르게 위축됐다.

KDI는 “상승세를 지속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며 “기업 심리지표도 다시 하락(2020년 12월 84→2021년 1월 78)하는 등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PX 계열사, 회장 아들 회사에 수출사업 무상 제공 ‘과징금’

중견 화학그룹인 KPX 소속 진양산업이 양규모 회장(동일인)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원료 수출 영업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철폐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PX 소속회사 진양산업(지원주체)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3500만 원(각각 13억6200만 원·2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KPX는 자산총액 2조3000억 원인 중견 기업집단으로 3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진양산업은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업체로 KPX 핵심회사인 진양홀딩스가 43.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부동산임대업 및 상품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양규모 회장 장남인 양준영씨가 8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2015년 8

월 자신이 수출하던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의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무상 양도는 두 회사가 각각 재직하던 임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졌고, 이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다른 계열사 직원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수출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양보 언급’ 오, 명분 쌓기 관측 안,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없어

힐 시 이달 중순 예정된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안 대표의 입당 등을 염두에 두고 경선규칙을 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담판 시도는 이번 만남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안 대표가 기존 입장을 바꿔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입당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협소하게 (선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의원수 몇 명 대 몇 명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오히려 지지하지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 사고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입당이나 합당을 전제로 한 야권단일화에는 부정적인 안 대표와 오 전 시장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수확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 대표는 오 전 시장을 비롯해 야권 주자들과 야권단일화와 관련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진영에선 2011년 무상급식 투표로 시장직을 걸었던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 당선에 ‘원죄’가 있고, 단일화 줄다리기에 서 후보직을 양보한 안 대표도 이에 일조한 까닭에 이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구글·애플, 극우 SNS ‘팔러’ 퇴출

“폭력 조장 게시물 삭제관리 필요”
페북·트위터, 트럼프 계정 차단
팔러 “트위터는?” 이중잣대 제기
“언론·표현의 자유 목살”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배후로 지목되면서 그의 메가폰 역할을 해온 소셜미디어 계정이 잇따라 정지됐다. 이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극우 소셜미디어 앱인 ‘팔러’로 활동 무대를 옮기자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아예 이 앱을 삭제해버렸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목살하는 행위라는 또 다른 반발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8일 전 세계 팔러 다운로드 수는 21만 건으로 7일 대비 281%나 폭증, 애플 앱스토어에서 팔러는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

록했다. 6일부터 사흘간 미국에서 이 앱을 다운로드 한 횟수는 2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0일에 맞춰 극성 트럼프 지지자들이 ‘100만 민병대 행진’을 추진하는 등 또다시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이어지는 탓이다.

이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동결했고, 더 나아가 애플과 구글은 앱스토어에서 팔러 앱을 삭제, 소셜미디어에서의 우파 대이동에 제동을 걸었다. 애플은 9일 성명에서 “우리는 항상 앱스토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원해왔지만, 폭력과 불법 행위의 위협을 위한 자리는 없다”며 “팔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앱스토어에서 팔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에 앞서 구글도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러를 퇴출했다. 7일 성명에서 구글은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글의 정책에 따라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앱에는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개발자는 이 정책에 동의하며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팔러에 이 정책을 명확하게 상기해줬다”고 했다.

존 메이츠 팔러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의 차단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엄격한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애플의 추가 차단 이후에는 “트위터에도 ‘마이크 펜스를 처형하자’는 문구가 떴지만, 애플이 트위터를 쫓아냈다는 얘

는 듣지 못했다”며 이중 잣대 논란을 제기했다.

전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잇따라 정지했다. 페이스북은 최소한 임기 말까지 계정을 정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트위터는 아예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트위터는 전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 계정이 차단되자 대통령 공식 계정인 @POTUS로 접속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말했듯 트위터는 발언의 자유를 금지해왔다”며 “오늘 밤 트위터 직원들은 민주당과 급진 좌파의 손을 잡고 내 계정을 차단해 나와 나에게 표를 던진 7500만 명의 유권자를 침묵시켰다”고 주장했다.

최혜림 기자 rog@

반도체 공급난에 감산 속타는 글로벌 車업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핵심 부품인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줄줄이 감산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서 겨우 헤어나오기가 싶던 자동차 업계에 반도체 문제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혼다자동차는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이달 일본에서 4000대를 감산하기로 했으며, 중국에서도 월 생산량의 20% 수준인 3만 대 이상의 감산 방침을 거대처에 통보했다. 닛산자동차 역시 지난해 12월 소형차 ‘노트’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으며, 도요타자동차도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서 픽업트럭 ‘툰드라’ 생산을 줄일 방침이다. 닛산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 2월 이후에도 감산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도요타는 다른 차종에 대해서도 감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만이 아니다. 북미에서는 포드자동차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미국 켄터키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서 예정하고 있던 다운타임(작업 중단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으며, 독일 폭스바겐과 다임러 역시 업계 전체에 파급되는 반도체 공급의 병목 현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2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 중국과 북미, 유럽 공장에서 생산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도 고급 세단인 ‘크라이슬러 300’ 등을 생산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생산 거점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멕시코 지프공장의 재가동 시기를 1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FCA는 “북미 지역의 다른 생산 시설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판매가 급감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정용 PC 및 스마트폰 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4~5월까지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인니서 보잉737 추락 ‘전원 실종’

737맥스 운항재개 앞두고 대형 악재… 사고원인 불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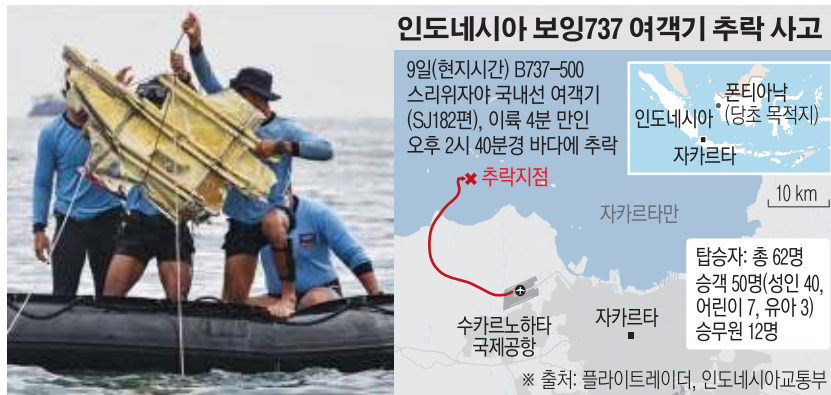
두 번의 대형 추락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미국 보잉이 또 다시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인도네시아 3위 항공사인 스리위자야항공 소속 보잉 737-500 여객기가 해상에서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62명 전원이 실종된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 역시 2년여 전 겪은 추락사고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스리위자야항공 SJ182편이 이날 오후 이륙 직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서부 시간으로 오후 2시 36분 승객과 승무원 62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출발해 보르네오섬 서쪽 폰타나크로 향하던 이 여객기는 4분 만인 오후 2시 40분에 연락이 끊겼다. 이 여객기는 자카르타 북부 해상 란짱섬과 라키섬 사이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존자와 관련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추락한 보잉 항공기는 737-500으로, 연쇄 추락 사고로 20개월 동안 운항이 금지됐던 신형기 ‘737맥스’와는 다른 기종이다. 2000년까지만 생산된 노후 모델이며,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 사고 기록이 400만 번 당 약 1건에 불과해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스리위자야항공 역시 여객기 상태는 양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사 책임자는 “예정보다 이륙이 30분 늦어지기는 했으나, 이는 폭우로 인한 것이지 기체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보잉으로서도 좋지 않은 시기에 또 다시 사고가 터졌다는 평가다. 앞서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사들이 10일(현지시간) 스리위자야항공 SJ182편 보잉 737-500여객기가 추락한 란짱섬 인근 해역에서 잔해를 인양하고 있다.

잉 737맥스가 잇따라 추락해 총 346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단했고, 그로부터 20개월이 지난 작년 12월이 돼서야 운항 재개를 승인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2년 전과 유사한 추락 사고의 악몽이 되풀이됐다. 인구 2억7000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최근 10년 새 항공 여

행이 급증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수카르노하타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이륙 12분 만에 서자바주 까리왕 군 앞바다에 추락, 탑승하고 있던 189명 전원이 숨지는 비극을 겪었다.

보잉은 “추락 사고와 관련해 스리위자야항공과 접촉하고 있으며, 그들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yun@

YouWho

아시아 유일!! 국내 최초!!
DNA 혈통분석 서비스

그것을 아십니까?
한국인이라도 다양한 인종의 혈통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Meet you All

Designed by B-for Brand
www.b-forbrand.com

2020 레드닷 어워드 수상
Red Dot Design Award

2020 펜타워즈 브론즈 어워드
Pentawards Bronze Award

1. 유후는 미원다이에그노믹스(EDGC)에서 개발한 DNA 분석서비스로서 나의 DNA와 6대륙 22개 인종 95개 국가 인종의 DNA와 비교 합니다.

2. 나의 무게 7개그룹, 모계 12개그룹의 유전적 혈족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내 전체 유전체 기업 중 유전자 혈통분석이 가능한 기업은 EDGC가 유일합니다.

NAVER 유후 제품상담 : 032-713-2128 | 구매문의 : www.youwho.co

EDGC Cell-free DNA기반 토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미원다이에그노믹스(EDGC)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 토탈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Cell-free DNA(세포 유리 DNA) 분석기술 기반, 질병을 예측, 진단, 치료하는 최첨단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인증서의 시대

KB모바일인증서로 열다



● KB모바일인증서 발급 경로: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준비물: 본인명의휴대폰, 신분증



쉽고 빠르고 간편한 로그인

패턴, 지문, Face ID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

한 번 발급만으로 갱신이나
재발급 필요없이 사용 가능



폭넓게 활용하는 통합 인증서비스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와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활용

※ KB모바일인증서는 14세 이상 1인 1기기만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 미사용(1년 이상)시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채널, 이체한도 및 이용기기 등 KB모바일인증서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1863호(2020.09.16), 광고물 유효기한 2021.12.31까지

KB 국민은행

〈독립보험대리점〉

금감원, GA ‘보험상품 비교 설명’ 현미경 검증 나선다

상품만 수천개 비교 설명 어려워
‘실효성 의문’ 지적에 중점 점검
“현실 맞게 세부 규정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이 올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1분기 점검과제로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 관리를 선정했다.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는 대형 GA에 도입된 지 4년째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상당한 만큼 세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GA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를 점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계약 기준으로 2021년 3월까지 제출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준법감시인협의를 통한 점검이다. 금감원은 500인 이상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준법감시인협의를 도입해 분기별 점검 과제를 결정해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 점검 사항은 대리점협회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제도

대상

보험설계사를 500명 이상 두고 있는 대형 GA는 3개 이상 상품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비교 설명

항목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기간
- 보험료
-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 재계약 관련 사항
- 해당 보험상품의 차별화된 특징



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된다.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 모집을 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유사 상품 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이다. 대형GA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하지만 시행한 지 4년 차인 지금에도 해당 제도는 미숙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GA업계 관계자는 “500인 이상 대형GA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여서 전

속설계사나 소형대리점에서 이직한 설계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확인서를 지사 내에서 갖고만 다니는 설계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행 취지가 무색하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리·감독에 앞서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손보 상품의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를 정도로 복잡 다양하고 GA설계사는 비교 상품의 개별자료를 인쇄한 후 방문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보니 비교설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험 상품 비교설명제도의 도입취지는 소비자의 선택정보 제공인데 보험 상품의 주계약, 선택 특약을 모두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의 문이고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비교설명확인서를 갖는데도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행세칙으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연 기자 sjy@

손태승 회장 ‘디지털 혁신’ 승부수 “빅테크처럼 인사·예산 지원”

우리금융 ‘타운홀 미팅’

“올해 디지털 멤버원 목표
전 임원 사고 대전환 필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임직원에게 디지털 멤버원이 되기 위해 사고 방식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신년 첫 행보로 디지털 혁신을 행한 것이다.

손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디지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타운홀 미팅’에서 “디지털 멤버원이 되려면 소속을 불문하고 모든 임원이 사고 방식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권광석 우리은행장을 포함한 자회사 CEO 등 임직원 50여 명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미팅은 올해 획기적 성과를 내기 위해 연초에 자리를 마련하자는 손 회장의 아이디어로 열리게 됐다.

손 회장은 디지털 조직에서의 예산·인력 운용 자율성에 대해 “내규나 법률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빅테크 수준으로 과격적인 해결책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룹 디지털 부문에 인사, 예산도 빅테크처럼 과격 지원에 나설 것을 밝힌 것이다.

이어 손 회장은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장애물들이 정리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획기적인 성과를 내달라”며 “상반기가 지나는 대로 고객과 임직원 및 외부 서베이 평가를 포함해 그룹 디지털 혁신에 대한 재무, 비재무 성과를 면밀히 평가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8일 ‘디지털 혁신 타운홀 미팅’에서 자회사 임직원들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해 5월 ‘디지털 퍼스트, 체인지 에브리씽(Digital First, Change everything)’을 그룹 디지털 비전으로 선포하면서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손 회장은 디지털혁신위원회장으로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직접 챙겨왔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디지털 혁신은 올해 그룹의 최우선 미션”이라며 “우리은행 역시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이니셔티브(Digital First, Digital Initiative)’를 경영목표로 설정해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www.kwnews.co.kr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보는

江原日報 X NAVER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강원도의 이익이 강원일보-네이버를 통해 극대화 됩니다.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車보험 손해율 1년새 99.8% → 91.2%

사고 줄고 보험료 인상 영향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한 영향이다. 연초에 인상된 보험료도 한몫했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보험사 중 흥국화재·AXA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을 제외한 9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2%로 파악됐다.

손해율은 보험금 지출액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비율이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해 적자를 보지 않는 적정 손해율은 80% 선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는 2019년에 최악의 손해율 99.8%를 기록하며 자동차보험에서만 약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봤다. 작년 자동차보험의 영업 손실은 2019년의 절반 아래로 축소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회사별 손해율은 메리츠화재가 82.0%로 가장 낮았다. 시장점유율이 합쳐서 80%에 해당하는 주요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손해율은 84.5~85.6%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에 손해율이 113.7%로 치솟았던 롯데손해보험은 JKL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1년여 만에 손해율이 90.8%로 대폭 개선됐다.

2019년 지급여력비율(RBC)에 빨간불이 켜졌던 한화손해보험도 98.0%에서 90.5%로 낮아졌다.

MG손해보험의 작년 손해율은 107.5%로 나타나 2019년에 이어 작년에도 가장 높았다.

업계 전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코로나19로 차량 이동량이 감소하며 차 사고 발생량이 약 9% 줄었고 연초에 보험료가 평균 3.3~3.5% 인상된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일평균 사고 발생량은 2019년 2만1283건에서 지난해 1만9402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고 1건당 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났 탓에 손해율 감소 효과는 기대를 밑돌았다.

대인보상이 이뤄진 사고 1건당 평균 손해액은 270만 원에서 299만 원으로, 대물보상 1건당 손해액은 134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각각 늘었다.

곽진산 기자 jinsan@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ESS로 재사용’ 실증 개시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받아… OCI와 사업 협력
전기차 시대 맞춰 폐배터리 문제 해결 신기원 기대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 처리한 뒤 태양광 발전소가 뽑아낸 전기를 저장하는 데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승인도 받았다.

10일 현대차그룹은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Junk Battery)를 가공해 태양광 발전소의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ESS)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례승인도 받았다. 그동안 국내에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에 관한 인허가 규정이 없었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사용은 각각 정의가 다르다. 재활용은 분해와 파쇄 등 물리적인 공정을 거친 뒤 이를 새 배터리의 ‘원료’로 활용한다.

반면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배터리 재사용은 기존 전기차 배터리에 재처리 공정을 추가해 잔존가치를 그대로 활용한다. 재사용 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이번 사업처럼 ESS로 활용한다.

이런 배터리 재사용은 전기차 제조사의 커다란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전역에서 친환경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 중이다. 이는 수년 내 폭발적인 ‘폐배터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폐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효율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 사업은 2018년 세운 현대차 울산 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시작한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한 ESS에 저장했다가 외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실증사업에는 OCI도 참여한다. OCI 파워는 충남 공주공장에 세운 태양광 발전소에 현대차그룹이 만든 300kWh급 ESS를 설치했다.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에 일정 단계의 공정을 더해 재사용한 경우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9년 OCI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설비 구축 △태양광발전 사업모델 발굴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도 협업한다.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3GWh(기가와트시)급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ESS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태양열을 시작으로 수력과 풍력·조력발전 등 생산량 변동 범위가 큰 전기 에너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량이 불규칙하지만 이를 꾸준히 ESS에 저장하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번 특례승인 덕에 정부는 폐차(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앞세워 관련 부처의 인허가 규정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재혁 현대차그룹 에너지신사업추진실 상무는 “정부부처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승인으로 추진하게 된 이번 실증 사업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 노하우를 선제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현대차 울산 공장(왼쪽)과 OCI스페셜티 공주 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진제공 각 사

유럽 10대 중 1대 ‘전기차’…물 만난 ‘K배터리’

PEV 점유율 3배↑…노르웨이 75%
LG 240만대 규모 등 ‘증설 전쟁’

지난해 유럽에서 계약된 자동차 10대 중 1대가량이 전기차(PEV)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점유율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현지 공장 증설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0일 외신과 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 이뤄진 전기차 계약 비중이 전체의 11%를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11월 말 점유율이 이미 10%를 넘긴 상태였고, 12월에 전기차가 20만 대 넘게 팔린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19년 전기차 점유율이 3.6%였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3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애초 업계에서 공격적으로 추측한 올해 점유율 5%보다도 두 배 이상 높다.

국가별로 보면 노르웨이는 지난해 전기차 점유율이 74.8%에 달했다. 스웨덴은 32.2%, 영국은 23.4%, 네덜란드 25% 등의 점유율을 보였다.

곽미성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은 최근 발표한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현재 유럽이 뒤쳐진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업수요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시장 진입 기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동유럽

에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증설 등 투자를 늘리고 있다.

LG화학은 2018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증설을 이어가며 생산 규모를 60GWh(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GWh는 매년 순수 전기차 4만 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전구 용량이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헝가리 괴드와 코마름을 거점으로 택했다. 삼성SDI는 괴드 공장에 4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최근 4개 라인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두 번째 공장 건설도 계획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코마름 공장에 더해 9GWh 규모의 배터리 2공장을 짓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세 번째 공장을 지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탑승률 49%에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달 처음 시행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이 기대보다 저조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 관광비행 1차 운항 기간(지난달 12일~이달 2일)에 총 16편이 운항했다.

애초 26편이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면서 운항편이 절반가량 줄었다. 애초 업계에서는 탑승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1차 운항 기간 평균 탑승률은 49%에 그쳤다. 총 3104석이 공급됐으나

1520명만 탑승한 것이다. 탑승률 70% 기준 항공사는 국제 관광비행 1편당 운임만으로 2000만~9820만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보다 적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관광비행 2차 운항 기간(1월 9~31일)에는 진에어와 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아시아나 항공이 1차보다 줄어든 총 12편이 운항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높고 있는 항공기를 띄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일”이라며 “지금은 주말 위주로 운항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평일에도 관광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차 그랜저 35년 만에 내수 200만대

지난해 연 최다 14.5만대 기록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그랜저가 내수 누적판매 200만 대를 넘어섰다.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1986년 첫 모델을 출시한 그랜저 내수판매가 35년 만에 총 200만573대를 기록하며 200만 대를 넘어섰다.

출시 초기에는 국산 최고급 자동차를 대표하며 ‘성공의 대명사’로 불렸다. 초기 판매량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으나 이후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큰 차 선호 경향이 맞물리며 판매를 꾸준히 늘려왔다.

누적 판매 200만 대 달성에 큰 역할을

한 모델은 5세대와 6세대다. 그랜저HG(5세대)부터 판매가 크게 성장해 2011년 당시 대형 세단으로는 처음으로 연간 판매 10만 대를 넘어섰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그랜저IG(6세대) 역시 꾸준히 연 10만 대를 달성하며 국내 베스트셀링카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1986년 1세대 출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인 14만5463대가 팔렸다. 동시에 4년 연속 국내 판매 1위와 연간 판매 10만 대 기록을 달성했다.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한 세대를 앞서나간 디자인과 넉넉한 편의 장비를 앞세워 큰 인기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 TV 전 제품 ‘에코 패키지’로 포장

소형 가구·소품 제작 가능
배터리 뺀 태양광 리모컨도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제품 분야에서 친환경 전략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삼성전자는 라이프스타일 TV에 적용하던 ‘에코 패키지’(사진)를 2021년형 전 제품으로 확대한다.

작년에 첫선을 보였던 에코 패키지는 TV 배송 후 버려지는 포장재에 업사이클링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포장재를 이용해 고양이 집, 소형 가구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점 패턴을 적용하고 QR 코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소품 제작을 위한 설명서를 제공한다. 박스 1개당 1개의 소품만 제작해 업사이클링 한

다고 해도 약 1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친환경 리모컨도 새롭게 선보인다. 2021년형 QLED TV 전 제품에 적용되는 솔라셀 리모컨은 일회용 배터리 없이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다. 크리스탈 UHD TV 일부 모델에는 기존 모델 대비 80% 이상 소비전력을 절감한 절전형 리모컨을 제공한다.

그동안 시행해 왔던 재생 플라스틱 사용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재생 플라스틱은 모니터와 사이니지의 스탠드, 뒷면 커버에 주로 사용된다.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제품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500톤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전경련 국제경영원 온라인 교육망 구축

지방 기업인 접근성 높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은 11일 온라인 전용 교육 서비스 플랫폼 ‘IMI ON’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기획된 ‘IMI ON’은 전경련의 경영자 교육 43년 노하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싼 일정의 기업인들과 지방 소재 경영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수요를 맞추는 데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용 사이트에서는 경영과 인문학 구루로부터 매일 지식을 나누는 조찬경영, 최고경영자 지식향연인 CEO 제주 포럼, 프런티어 기업의 아이디어 벤치마크 전략 포럼 등 기업인을 위한 경영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온라인 회원 가입 특전으로 전경련 최고 위 과정 수료 동문 등 4000여 기업인을 대상으로 회사와 제품 소개를 할 수 있는 가상 공간도 제공한다.

김주태 전경련 국제경영원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공간 제약 없이 신속하게 정보를 취득할 온라인 플랫폼은 필수”라며 “더 많은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들이 발 빠르게 경영정보를 취득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온라인 전용 회원제의 기획 의도”라고 밝혔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OTT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반발

방통위 “방송·OTT 포괄하는 법 제정 추진하겠다” 발표
과기부·문체부도 관련 법안 추진… ‘OTT 주도권’ 경쟁
업계 “서로 규제하겠다고 난리… 이중·삼중 옥죄기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등과 한 데 묶어 법제화를 하겠다고 나서자 OTT 업계가 ‘중복 규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주도권을 뺏기기 싫어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방통위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OTT 등이 모두 포함된다. OTT의 성장으로 미디어 간 융합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디어 규제 체계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방통위는 해당 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 다만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레거시 미디어와 OTT가 서비스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게 규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같은 것은 같게 규제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돼야 하는데, 지금 방송미디어산업에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존재한다”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는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법적으로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토종 OTT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제화가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이미 과기정통부와 문체부에서 OTT의 정의와 구분 등을 담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OT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해 정책 비전으로 방통위가 OTT를 포괄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체부 등에 선수를 뺏기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법을 만드는지 알 수는 없으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차별적으로 규제를 받게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일 뿐 법제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통통신위원회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존 방송법에 OTT를 포괄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점이다. 2019년 여당에서 OTT를 방송법에 넣어 규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OTT 업계는 토종 OTT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크게 반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제화에 관해 “현재 연구 중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기존 방송법에 OTT를 포함하는 방향은 아니고 새

로운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OTT 업계는 방통위가 지난해 OTT 정책 협의회를 만들어놓고도 이번 법제화와 관련해 소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협의회를 만들었는데도 왜 의견도 안 묻고 진행하는지, 현시점에서 왜 필요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법안에 대해 방통위 법안으로 이중, 삼중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했다. 그는 “법이 생기면 그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 등이 추가돼 부차별 관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서로 규제하겠다고 난리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 상반기 내로 국무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

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이 법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자율등급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처럼 유료이면 현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OTT 플랫폼에 선 공개된 뒤 지상파 채널에 편성되는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지상파 채널에 편성된 콘텐츠는 심의에서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받게 돼 있어 불평등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OTT 업계는 자율등급제 등 규제 완화 부분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문체부와 OTT 업체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 관계자와 해당 내용을 논의했는데 영등위도 OTT에 사전 심의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쯤으로 추진을 생각하며 시간을 넉넉히 잡고 있더라”라며 “의지만 있으면 시행령 등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NIA·SK(주)·더존비즈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SK(주), 더존비즈온을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정계획을 작년 9월 28일 공고하고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 지정심사를 거쳐 이들 3곳을 확정했다.

결합 전문기관은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이중 분야 간 데이터의 융합을 촉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나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IA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맵의 주요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데이터 맵의 성공적 구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SK(주)는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교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합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한다. 중소기업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하는 더존비즈온은 기업 맞춤형 서비스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공목적부터 상권 분석,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감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이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담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LG U+ ‘커플요금제’ 부활 … 5G 판도 흔들까

월 4만원대 5G요금제 출시 이어
5G·LTE 첫 ‘지인 결합 요금제’
3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 이용

LG유플러스가 ‘5G 무제한’을 3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인 결합 요금제를 내놨다. 5G 중저가 요금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제대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10일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5G)·로밍에불루선(LTE)·인터넷 요금 결합 서비스 ‘U+투게더’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족을 비롯해 지인까지 결합이 가능한 서비스는 5G·LTE 시장에서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무제한 요금제 3종도 신설했다. ‘5G 프리미어 에센셜’은 월 8만5000원에 5G 데이터 무제한, 웨어링·테더링 데이터를 각각 15GB 제공하는 요금제다. ‘LTE 프리미어 플러스’는 월 10만5000원에 LTE 데이터가 무제한이며, 웨어링·테더링 데이터는 각각 50GB씩 서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이 5G·LTE 첫 지인 결합 요금제 ‘U+투게더’를 홍보하고 있다.

비스한다. ‘LTE 프리미어 에센셜’은 LTE 무제한, 웨어링·테더링 데이터는 각각 15GB로 구성했다. U+투게더 결합은 새롭게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 3종과 기존 무제한 요금제 4종에서 쓸 수 있다.

지인 결합 요금제는 3G에서 LTE 시대로 넘어오면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SKT 경우 LTE 커플 요금제를 2012년 내놨으나 한 사람(커플)을 지정해 최대 1만 분까지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데 초

점을 맞춘 요금제로 실질적인 가격 할인 효과는 적었다. KT 역시 2014년 LTE 커플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커플 간 음성 무제한 통화 혜택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규 요금제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면서 지인과 결합해 가격 할인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처럼 하나의 서비스를 같이 요금 부담을 해 이용하는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5G 요금제를 실질적으로 3만 원까지 내렸다는 점도 특징이다.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G 온라인 요금제도 3만 원대이지만 이는 온라인 가입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선택약정 할인이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결합상품할인과 멤버십 혜택도 받지 못한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요금제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가격대는 3만 원대로 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5일 월 4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며 새해 벽두부터 요금제 경쟁을 주도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장 판도를 흔들고 싶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5G 중저가 요금제의 실패를 쏘아 올린 KT와 최근 과기정통부에 신규 요금제를 신고한 SKT가 추가 요금제 신설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노란우산 기준이율 2.2%로 상향

대출이율은 0.1%P 낮춰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 기준이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이율은 이달부터 기존 2.1%에서 2.2%로 0.1%포인트 인상했다. 반면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내렸다.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대출이율이 조정되면서 올 1분기에는 140만여 명의 가입자에 38억 원의 이자가 추가로 적립될 전망이다. 또한, 16만 명에 달하는 노란우산 대출자는 총 8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말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이율은 상향하고 대출이율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관리 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제도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대출이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원 기자 leedw@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지급

사업자번호 홀짝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 오후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6만 명, 영업제한은 76.2만명, 일반업종은 188.1만명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 및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5만개, 실내체육시설 4.5만개 순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해 새희망자금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 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 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와 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

장내 미생물로 질병 치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열린다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상용화 사례는 없다. 현재 해외에서 5개 품목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만큼 상용화가 임박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3개 기업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거나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를 뜻한다. 인체 질병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한 신약인 셈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204개다. 시장 규모는 2018년(5630만 달러) 대비 2024년(93억8750만 달러) 167배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임상시험에 진입한 곳은 고바이오랩이다. 고바이오랩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KBLP-001'을 지난해 초 호주에서 임상 1상 환자 투약을 완

고바이오랩 등 3곳서 임상 진행 시장규모 2024년 94억달러 전망 치료제 상용화 아직... 성과 기대

료했고, 이후 같은 해 8월 미국 FDA에서 임상 2상 IND를 승인받아 현재 환자를 모집 중이다. 고바이오랩은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KBLP-001'의 임상 1상 IND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바이오랩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면역질환을 치료하는 'KBLP-002'에 대해 호주 1상 임상시험에서 투약을 완료했다. 임상 1상 결과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 후 올해 1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고바이오랩은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미국 FDA에 임상 2상 IND를 제출하거나 국내 식약처에 IND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놈앤컴퍼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지놈앤컴퍼니는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인 'GEN-001'에 대해 국내 기업 최초로 지난해 5월 연구자 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현황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체명	제품	적응증	임상계획
고바이오랩	KBLP-001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미국 임상 2상 진행 중 / 식약처 1상 IND 신청
	KBLP-002	알레르기성 면역질환 치료제	상반기 내 미국 FDA 임상 2상 IND 신청 계획
지놈앤컴퍼니	GEN-001	면역항암 치료제	미국 1/1b상 진행 중 / 식약처 1상 IND 승인
	SB-121	자폐증 치료제	미국 FDA 임상 1상 승인
셀바이오텍	CBT-P8	대장암 치료제	상반기 내 식약처 1상 IND 신청 계획

도 임상시험(GEN-001 단독요법)을 승인 받은 데 이어 11월에는 기업주도 임상시험(GEN-001 병용요법)을 승인받았다. 이에 앞서 미국에서 'GEN-001'에 대한 1/1b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지난 10월 환자 대상으로 첫 투약을 시작하며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지놈앤컴퍼니는 면역항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뿐 아니라 자폐증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SB-121'에 대한 임상시험도 준비 중이다. 'SB-121'은 전임상 시험을 통해 장손상을 회복하고 옥시토신 분비를 활성화해 뇌 질환을 치료하는 작용기전 및 효능검증을 완료했다. 미국 FDA에서 IND 승인을 받은 만큼 올 상반기 내에 임상 1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놈앤컴퍼니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면역

항암·자폐증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한 기술이전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셀바이오텍은 상반기 안에 마이크로바이옴 대장암 치료 후보물질 'CBT-P8'을 국내 식약처에 임상 1상 IND를 신청할 예정이다.

천랩은 'CLCC1' 군주로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 치료제와 장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장질환 치료제 적응증에 우선순위를 두고 올해 다시 전임상을 이어간다. 아울러 CLCC1 외에 새로운 군주로 신경질환 치료제 관련 전임상도 시행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임상시험 건수가 늘자 식약처는 지난 12월 지원팀을 구성했다. 지원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관련 심사부서, 연구부서 등 3개 과로 구성하고, 연구사업 및 전문가협의체 논의

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고려한 품질·비임상 및 임상 자료 요건 등 가이드라인과 허가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품질 평가, 임상시험 등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완벽히 구축된 나라는 아직 없지만, 다른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올해 식약처 내 지원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가이드라인, 허가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합한 지침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마이크로바이옴바이오펜처와 손잡고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해 11월 고바이오랩의 자가면역질환 후보물질을 도입해 아토피피부염, 염증성 장 질환 등 자가면역질환 신약을 개발한다고 밝힌 데 이어 12월에는 MD헬스케어의 염증 및 호흡기질환 신약후보물질을 도입해 염증 및 호흡기질환 신약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선 기자 only@



1억3000만원 위블로 '무지개 시계'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서 31일까지 스위스 명품 위치브랜드 '위블로'의 마스터피스 전시를 진행한다. 대표상품은 '스피릿 오브 백백 레인보우'로 309개 컬러 젤스톤이 세팅되어 무지개 색 손목을 감싼 듯한 컬러감이 특징이다. 스트랩 또한 7가지 색상으로 염색된 악어가죽으로 무지개를 형상화했다. 국내 단 1점뿐이며 가격은 1억3000만 원대다. 사진제공 갤러리아백화점

AI 확산에 치킨값도 오르나

육계 23% 올라... 자영업자 타격 대형 프랜차이즈는 인상 선 그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확산세로 닭, 계란값이 들쭉이고 있다.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민 간식' 치킨값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육계 10호의 이날 도매가격은 3448원으로 한 달 전(2795원)과 비교해 23%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30개들이 계란(대란) 가격도(도매 기준) 4175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8% 대폭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좀처럼 찾아들지 않으면서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세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은 "2021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전북 임실, 충남 예산 육용종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며 육용종계 살처분 마릿수가 약 35만 마리에 육박하면서 추가

적인 살처분이 발생할 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들쭉이는 닭고깃값에 '국민 간식'인 치킨값이 덩달아 올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치킨 프랜차이즈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고기 수급이 이전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납품가격이 오르는 등 차이가 있다"면서도 "다만 육계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외부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가격을 일정 안의 범위에서 고정해놓기 때문에 지금 1만8000~2만 원 하는 치킨값이 더 오르는 것은 않"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구매력이 약한 영세 치킨 자영업체들은 가격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바잉파워때문에 연 단위로 공급가격을 정하지만 개인이나 중소 프랜차이즈의 경우 타격이 크다"며 "냉장유통하는 육계를 대량으로 구입해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가격이 오르면 고스란히 업주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치킨 가격 올리지 못하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간판 바꾼 조선폰텔앤리조트

'코로나 이후' 그리며 공격투자

'그랜드 조선 제주' 8일 오픈 '조선 팰리스' 4월 문 열기로

신세계그룹이 호텔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했으나, 향후 백신 상용화를 통한 '펜데믹 그 이후'를 내다보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조선폰텔앤리조트에 따르면 '그랜드 조선 제주'가 지난 8일 문을 열었다. 그랜드 조선은 '즐거움의 여정'이란 브랜드 슬로건 아래 선제적이고 따뜻한 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호텔의 감동을 선사해나가는 조선폰텔앤리조트의 새로운 특급호텔 브랜드다.

기존 컨설팅 호텔 제주를 리모델링한 '그랜드 조선 제주'는 지난해 10월 선보인 그랜드 조선 부산에 이은 그랜드 조선 2호점이다. 총 271개의 객실로 구성된 이 호텔은 6개의 식음업장과 타겟 별로 구분되는 총 5개의 실내·외 온수풀 수영장, 풍부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 시대 신혼여행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주도에서 특급호텔 간 경쟁은 더욱 열기를 띠 전망이다. 그랜드 조선 제주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하는데, 이곳엔 롯데호텔제주와 호텔신라제주가 이미 터줏대감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폰텔앤리조트의 브랜드 라인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첫 독자 브랜드 '레스케이프' 출범 이후 신세계그룹은 2023년까지 5개의 호텔 브랜드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이 같은 방침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을지로에 비즈니스급 호텔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명동을 개장한데 이어 연말엔 판교에 '그래비티서울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을 오픈했다.



그래비티 서울 판교 전경.

올해 4월에는 서울 강남 옛 르네상스 호텔 자리에 254실 규모로 최상급 자체 브랜드 '조선 팰리스'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엔 사명을 '신세계조선호텔'에서 '신세계'를 빼고 '조선폰텔앤리조트'로 사명을 바꿨다. 독자 브랜드 라인업 강화와 사명 변경에 대해 회사 측은 "조선폰텔이 가져가는 브랜드를 확장해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모회사의 든든한 지원이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하고 있다. 이날 이마트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조선호텔(현 조선폰텔앤리조트)는 3분기까지 영업손실 47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영업손실(124억 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이마트는 지난해 말 이사회를 통해 신세계조선호텔에 2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출자한 1000억 원을 포함하면 지난해만 이마트는 3700억 원을 호텔 사업에 지원한 셈이다. 그룹 오너의 간접 지원도 계속된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해 본인의 SNS 계정에 판교 그래비티 방문 사진을 업로드하며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사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한 번 영업을 시작하면 수십년간 지속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낙관할 수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마트24 '와인' 강화

'이달의 와인' 확대...200만병 목표

2020년 한 해 동안 1분에 3병 꼴로 총 170만 병의 와인을 팔아치운 이마트24가 와인 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마트24는 올해 와인 판매 목표치를 200만 병으로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70만 병에서 30만 병 늘린 수치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이달의 와인'을 확대한다. 매월 와인 바이어가 추천하는 1~2종의 와인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던 이달의 와인을 3등급의 가격대(1만 원 내외·1만 원 후반~3만 원대·4만 원 이상)로 세분화한다.

1만 원 안팎의 가성비, 1만 원 후반~3만 원대의 고만족, 4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선정한 와인을 매달 추천함으로써 와인을 처음 접하는 비기너(초심자)부터 고가의 와인도 즐기는 애호가까지 모두 이마트24의 단골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마트24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 G7(500ml) 3종(가베르네소비뇽·멜롯·샤도네이) 중 2병 구매 시 1만 원에 제공한다. 고객들은 인기 와인 1ℓ를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와인으로 '토마시 그라티시오 아파시오나토'를 선정하고 1월 말까지 2만3900원(기준 3만1000원)에 판매한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선정된 비나빅 '빅 A'는 칠레 3대 슈퍼 프리미엄 와인 비나빅와이너리에서 선보인 새로운 작품으로 편의점·대형마트에서 이마트24가 가장 먼저 선보이는 와인이다. 가격은 3만6900원이다.

주류특화매장 및 와인 O2O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주류특화매장 2400여점, 와인 O2O서비스 3000점을 운영 중이다. 남주현 기자 jooh@

‘10만 전자’·‘100만 화학’ 거침없는 질주 어디까지

불장 이끈 ‘증시 쌍두마차’

코스피가 3000고지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LG화학의 질주에서 시작됐다. 두 종목은 각각 ‘10만’ 원과 ‘10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LG 화학은 이미 장 중 100만 원을 터치했다. 두 대형주의 질주가 어디까지 갈 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900원(7.12%) 상승한 8만8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총은 530조 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12.7%만 더 오르면 ‘10만 전자’ 고지를 찍는다.

증권사의 목표주가가 실제 주가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8만 원 수준으로 내다봤지만 지난해 12월 4일 7만 원을 돌파한 후 불과 17거래일 만에 주가는 8만 원을 넘겼다.

이제 남은 목표는 10만 원이다. 증권업계는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며 ‘10만 전자’에 강하게 베팅했다. D램 가격 상승과 파운드리(위탁생산) 수혜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배당 매력도 높다.

삼성전자, D램·파운드리 수혜 7만원 돌파 17거래일 만에 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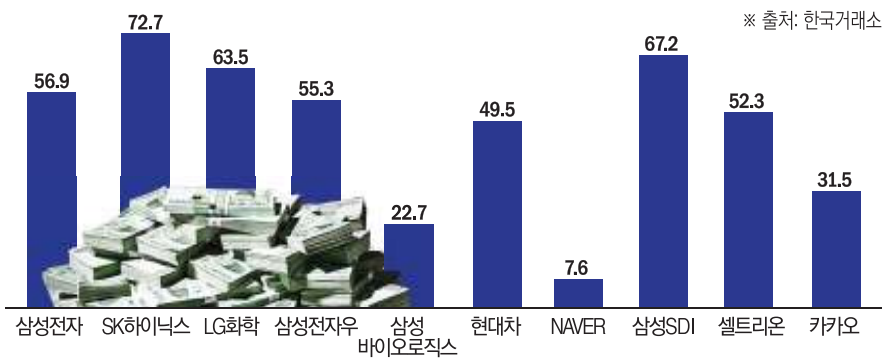
LG화학, 배터리 분할 이슈 불식 작년 11월 이후 수익률 63.5%

하나금융투자는 8일 보고서를 통해 목표주가를 기존 8만6000원에서 11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DS투자증권은 10만4000원,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10만 원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신영증권이 제시한 목표주가가(8만7000원)와 28일 유진투자증권이 내놓은 목표주가가(8만6000원)는 이미 넘어섰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1월 27일 보고서 발간 후 삼성전자 주가는 22% 상승했다”면서 “주주의 환원 확대 기대감, 파운드리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제품가격 상승), D램 업황 턴어라운드 영향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는 분기 실적 바닥을 지나갈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D램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부문

11월 이후 시가총액 10개 종목 수익률 (단위: %, 기간: 2020년 10월 30일 ~ 2021년 1월 8일 종가)



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면서 “단기 실적 부진보다는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 엑시노스 점유율 상승, D램의 업황 개선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LG화학은 8일 장 중 100만 원을 찍으며 ‘100만화학’을 빠르게 달성했다. 지난 11월 이후 수익률만 63.5%다. 한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했지만, 지금은 확고한 3위로 자리 잡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총 격차는 15조1417억 원으로 벌어졌다.

LG화학은 약재로 작용했던 ‘배터리 분할’ 이슈를 불식시키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다. 지난해 9월 LG화학이 배터리를 포함한 2차전지 사업부문을 분할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당시 주당 70만 원을 넘어서던 주가가 일주일 만에 61만 원 대로 급락했다. 당시 주주들은 “LG화학에서 배터리사업이 빠져나가면 방탄소년단 없는 박히트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LG화학은 전지 사업 물적분할 후 향후 3년 이내 주당 1만 원 이상 현금배당에 나서겠다고 주주들을 달랬다. 또 회사 분할은 전문 사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고, 경영 효율성도 증대돼 오히려 기업가치와 주가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득했다. 실제로 LG화학의 가치는 계속 올라갔

다. LG화학에서 분할되어 나온 LG에너지솔루션이 아직 100% 자회사여서 전지 부문 수익이 고스란히 회사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국내 2차전지 대장주가 여전히 LG화학인 이유다.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받으면 LG화학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수 있지만 투자 유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LG화학의 목표주가를 125만 원까지 높여 잡았다. 삼성증권은 “LG화학의 주력 사업은 EV 배터리로 변화할 것이고, 글로벌 배터리업체의 밸류에이션(가치)을 추종하며 상승하고 있다”면서 목표주가를 125만 원으로 제시했고, 대신증권은 120만 원, SK증권은 110만 원을 목표주가로 내놨다.

한편 삼성전자와 LG화학 이외에도 대형주 대부분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삼성전자와 함께 D램 가격 상승의 수혜자인 SK하이닉스는 72.7% 주가가 올랐고, 또 다른 배터리주인 삼성SDI는 지난 11월 이후 67.2% 상승했다. 현대차는 애플과 협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49.5% 올랐다. 손엄지 기자 eom@

진격의 코인·전기차... 글로벌 시총 ‘지각변동’

비트코인, 대체 자산 인식 확산 작년 3월 年저점서 10배 상승

페이스북 시총 뛰어넘은 테슬라 S&P 500 편입 후 자금 블랙홀

지난해 시총이 급격히 늘어난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10위 권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의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10일 자산통계사이트 컴패니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지난해 처음으로 글로벌 자산 순위 10위권에 진입한 후 페이스북까지 제쳤다.

테슬라는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내는 데 성공한 이후 전기차 시장 뿐 아니라 폭스바겐과 토요타 등을 잇달아 넘어섬에 자동차 산업의 왕좌에 올랐다. 특히 지난달부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편입에 힘입어 기관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테슬라에 버금가는 성장세를 보여줬다. 지난해 3월 연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순위 (단위: 원) ※1월 8일 기준

순위	자산명	시가총액
1	금	1경3354조
2	애플	2216조
3	사우디 아람코	2243조
4	마이크로소프트	1809조
5	아마존	1740조
6	은	1638조
7	알파벳(구글)	1321조
8	테슬라	848조
9	페이스북	839조
10	비트코인	807조
...	...	...
15	삼성전자	539조
22	SPDR S&P 500 ETF(SPY)	381조
92	이더리움	153조

※출처: 컴패니마켓캡

저점인 3858달러 이후 쉬지않고 상승하며, 10배(3만8518달러·8일 오전 기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동성 증가에 대응하는 대체 자산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성장 펀더멘털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 일부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자산으로의 가치가 급부상 중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과 배당 기대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왔다. 주력 신사업으로 확장을 꾀하는 파운드리 부문이 연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수주에서 성공하면서 성장 기대감을 부풀리는 중이다.

금은 1경 원이 넘는 규모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애플, 3위 아람코, 4위 MS, 5위 아마존 순이었다.

세계 최대 상장지수펀드(ETF) ‘SPY’는 23위로 펀드 중 최고 규모를 자랑했다. SPY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미국 우량주 500개 기업에 분산투자 하는 게 주요 전략으로, 성장과 안전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최대 153조 원대까지 늘어나며 100위 권에 진입했다. 이는 미국 웰스 파고와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3개 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카고상품거래소(CME)가 2월부터 이더리움 선물 시장을 열겠다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동반 상승 중이다. 김우람 기자 hura@

높아진 ETF 진입문턱에 불개미 ‘혼란’

기본예탁금제·사전교육 의무화 “교육 이수가 뭐요?” 문의 폭주

“레버리지 교육받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근 증권사 영업점에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매수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 투자자 문턱을 높이겠다고 알렸지만 올 1월 4일부터 해당 요건이 적용되면서, 정보를 미처 습득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 거래는 전년 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를 시작한 4일부터 7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KODEX200선물 인버스’를 951억 6900만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코스피200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매일 2배수 만큼 역방향으로 추격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이다. 해당기간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록한 순매수(2조3050억 원)의 4.1%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대한 투자 강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한 해동안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7조4907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는데 이 중 7.5%인 3조 5862억원이 ‘KODEX200선물 인버스’에 쏟아졌다. 지수 하락을 1배로 추종하는 ‘KODEX 인버스’(5791억 원)와는 순매수액 차이가 3조 원 넘게 벌어질 만큼 레버리지 거래가 압도적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낙폭의 곱절 가량을 베푸는 이른바 ‘곱버스’에 적극 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레버리지 ETF 거래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는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상승장에서 지수 수익률의 2배, 3배 등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 역시 2배, 3배 커져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곱버스’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데 최초 거래 시 기본예탁금은 1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손엄지 기자 eoml@

작년 공매도 하루 평균 거래대금 6540억

10년 새 400% 늘어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540억 원을 넘어 10년 사이 약 4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 원이었다.

이는 2018년(5218억 원)과 2019년(4207억 원)보다 큰 규모다. 2010년(1324억 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

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모두 2조6000억 원이었다.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 원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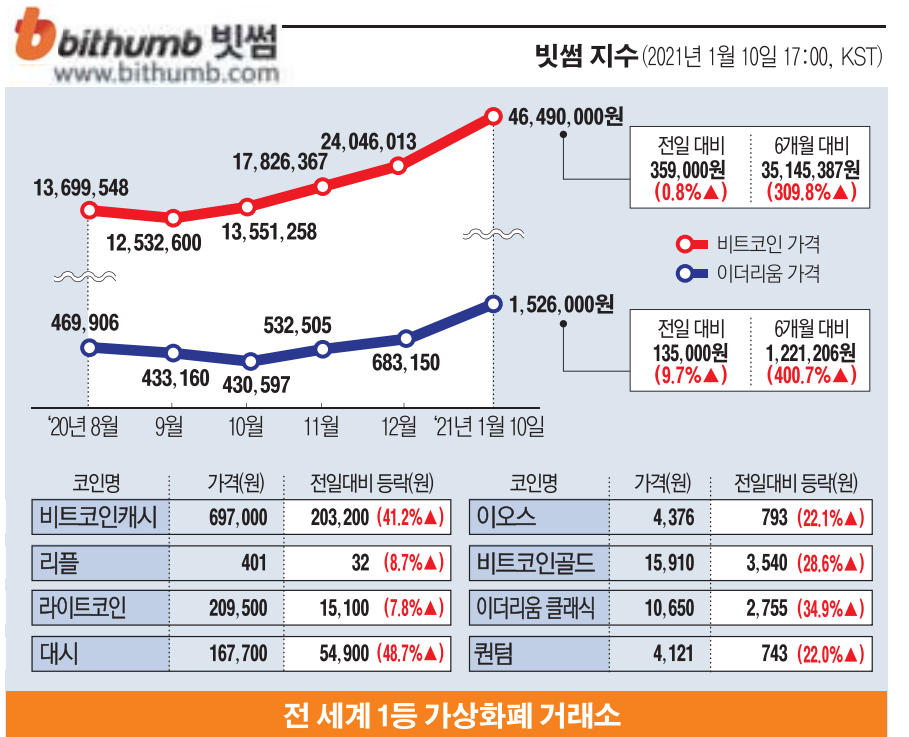
특히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됐

다. 누적 과태료는 94억 원이었다.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64만1001주)이었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31만4800주), STX팬오션(26만6527주), 웨이브일렉트로닉(20만 주), 삼성중공업(17만8060주), 미래에셋대우(7만5000주), 웅진케미칼(6만5211주), SK하이닉스(5만6965주), 현대하이스코(4만7933주), 삼성전자(4만7733주) 순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22개 시장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낚날이 공개해야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노원·도봉·강북〉

〈9억 이상〉

들썩이는 ‘노도강’ 고가아파트 속출

규제·임대차법에 중저가 ‘패닉바잉’…집값 갭 메우기 심화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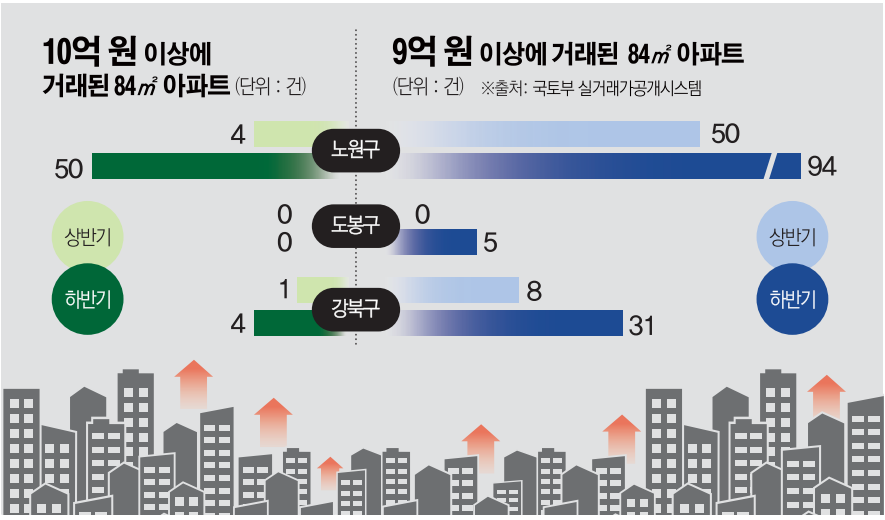
서울 중저가아파트 시장을 대표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고가 주택 기준인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노원구에선 최근 10억 원을 넘기는 거래가 줄줄이 쏟아졌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매매수요가 중저가 시장에 집중되면서 집값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 나온 전용 84㎡ 아파트 매매거래 중 10억 원을 넘긴 거래건수는 15건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한 달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달에는 16건을 기록했다. 11, 12월 고가 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하반기 노원구에서 나온 10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거래는 50건으로 불어났다. 이는 상반기(4건) 거래건수의 10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대부분의 고가 거래는 중계동에 집중됐다.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에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등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지역들에 맹모들의 관심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중계동 ‘라이프·청구·신동아아파트’에선 처음으로 대출 금지선인 15억 원 초과(전용 115.4㎡) 거래까지 나왔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을 넘기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노원구 중계동 A공인 측은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울 외곽 지역들은 아직도 집값이 낮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며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방침까지 더해져 이 일대 집값 오름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봉구와 강북구에서도 9억 원 이상의



노원 10억 이상 거래 지난달 15건
대출 금지선인 15억 초과도 나와
도봉·강북도 9억 넘는 아파트 급증
“서민들 주거비 부담 더 커질 듯”

전용 84㎡ 매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북구에선 상반기 8건이었던 9억 원 이상 매매거래가 하반기 31건으로 4배 증가했다. 도봉구에선 상반기 0건이었던 9억 원 이상 매매거래가 하반기 5건으로 늘었다. 11, 12월 창동 동아정철 아파트와 주궁19단지, 2개 단지에서 잇따라 고가 거래가 체결됐다.

9억 원은 정부의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으로 주택시장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용(LTV)이 20%로 제한된다.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였던 이들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뛴 건 정부 규제 영향이 컸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고 나서면

서 중저가 지역으로 매매수요가 집중된 탓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촉발하면서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대 젊은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달려간 곳도 중저가 시장이다.

결국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평(3.3㎡)당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재작년 12월(3351만원)과 비교하면 1년동안 무려 20% 급등했다. 집값이 저렴한 강북 상승세의 영향이 컸다. 실제 노원구가 33%로 가장 많이 뛰었고, 성북(32.5%), 도봉구(28.4%)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값이 치솟는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저가 단지들의 갭 메우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입주물량 급감 등으로 전세난과 함께 30대의 중저가 아파트 매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매매가격의 갭(차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김포·파주, 대규모 개발 속도

‘탄력받은 집값’ 연초부터 쑥

김포 감정2지구·전호지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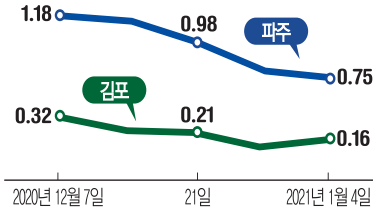
지난주 아파트값 0.16% 올라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산단 조성

올들어 일주일새 0.75% 상승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전주 대비) ※출처: 한국부동산원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가 나란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김포와 파주의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김포시는 최근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을 공고했다.

감정2지구는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02-8번지 일원에 면적 43만8960㎡ 규모로 조성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와 도로, 주차장, 공원, 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구성된다. 공동주택 5924가구와 단독주택 101가구 등 6025가구가 들어서 인구 1만5906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로 입주예정은 2024년이다. 한강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새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김포는 고촌읍 전호리 일원에 민간 임대주택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민간 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예정지의 대상면적은 36만7494㎡ 규모다.

파주시는 올해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운정테크노밸리일반산단

을 신규 고시했다. 예정지의 대상면적은 파주 연다산동 314번지 일대 47만 2600㎡ 규모다.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이달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GTX-A 등 교통여건을 갖춘 산단을 조성해 운정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1958억 원 규모다.

김포와 파주는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곳이다.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아파트값이 김포는 17.08%, 파주는 11.02% 치솟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주 김포 아파트값 변동률은 0.16%로 전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파주는 일주일 새 0.75% 급등했다.

파주 와동동 D공인 관계자는 “운정신도시와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파주와 김포의 집값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초부터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본격화하면서 시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중대재해법 통과…건설업계 “공사중단 위기”

건단련 “과잉 처벌 등 개정해야”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건설 현장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건설업계를 비롯해 모든 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 및 입법중단을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법이 한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 방식인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하한형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 무리수라는 설명이다. 김상수(시진) 건단련 회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면책해 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고 과도한 안전·보건 의무 및 법인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영 기자 moon@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사이버 전분주택 개관

2400가구 대단지…19일 1순위 청약

한양과 보성산업은 경기 의정부시 고산 지구에 짓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조감도>’ 사이버 전분주택을 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고산지구 3개 단지(C1-C3·C4블록)에 들어서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는 총 2407가구로 전용면적 69㎡, 79㎡, 84㎡, 101㎡, 125㎡로 이뤄졌다. 이 단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형 개발(법374은·복합문화융합단지) 계획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약 1200만 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18일 특별공급, 19일 1순위 청약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전매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3년간 금지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주의 분양캘린더

1월 둘째 주 전국에서 1만8000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27개 단지에서 총 1만8652가구(일반분양 1만427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자이더시티’,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 세상부평그랑힐스’, 대구 달서구 감삼동 힐스테이트감삼센트럴 등이 공급된다.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곳은 모두 12곳이다. 광주 서구 농성동 ‘더리미티드’와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대실2블록(공공분양)’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정당계약은 11곳에서 이뤄진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 ‘힐스테이트봉담’을 비롯해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완주삼봉지구 중흥S클래스에듀파크’, 대구 중구 ‘동성로SK리더스뷰’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전분주택은 모두 2곳이 문을 연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과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스위첸’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11 (월)	접수	경기	부천시	괴안동	역곡역일신건영휴먼하임 2순위	1/13 (수)	접수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A1(국민임대) (~1/20)	
			성남시	고등동	판교밸리자이(1단지) 1순위(기타지역)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캐슬&더샵퍼스트 1순위(기타지역)	
	발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협찬해가 ♣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NH센트럴힐(공공분양) 1순위(당해지역)	
		판교밸리자이(2단지) 1순위(기타지역)	대구	달서구	감삼동				힐스테이트감삼센트럴 1순위(기타지역)			
	계약	경기	화성시	봉담읍	힐스테이트봉담(민간임대) (~1/15)	발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부산기장A2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대구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7구역) (~1/13)		연제구	연산동	부산연산2(행복주택)			
		중구	삼덕동2가	동성로SK리더스뷰 (~1/13)	계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협찬해가 ♣			
1/12 (화)	접수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정향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3)	1/14 (목)	접수	경기	수원시	당수동	수원당수A3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5)	
					고양정향A5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3)					의왕시	초평동	수원당수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5)
				지축동	고양지축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3)					의정부시	초평동	의왕초평A3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5)
		성남시	고등동	판교밸리자이(1단지) 2순위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평캐슬&더샵퍼스트 2순위		
				판교밸리자이(2단지) 2순위					범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2순위		
				판교밸리자이(3단지) 2순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NH센트럴힐(공공분양) 1순위(기타지역)	
	발표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공공분양)A2-6 1순위		위례자이더시티(공공분양)A2-6 1순위	대구	달서구	감삼동	힐스테이트감삼센트럴 2순위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3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3)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A10)		
	1/13 (수)	접수	경기	부평구	청천동	부평캐슬&더샵퍼스트 1순위(당해지역)	1/15 (금)	오픈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스위첸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1순위(당해지역)						안락동
대구			달서구	감삼동	힐스테이트감삼센트럴 1순위(당해지역)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NH센트럴힐(공공분양) 2순위	
				과천지식정보타운S3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4)					과천지식정보타운S7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4)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공공분양)A2-6 2순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S3(공공분양) 1순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S3(공공분양) 1순위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REPS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REPS

<굿옥션 전 대표>

‘부실채권 돌려막기’ 박계욱, 징역 14년 확정

압류 전 재산 은닉 병합... “유죄”

법원경매정보 제공업체 굿옥션 박계욱 전 대표가 부실채권 매매대금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굿플러스자산관리를 운영하면서 2013년 11월~2015년 5월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각 채권 배당기 일 이후 일주일 내에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정작 계약금 20%와 수수료 등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환불, 배당금 정산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또 유찰된 콘도를 낙찰받겠다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가량을 속여 뺏은 혐의도 받는다.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법원 1심은 “피해가 거액인데도 잘못을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옮기는 등 피

해 변제를 회피하려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판매하면서 △폴 단위 우선변제 특약 체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이후 돌려막기 운영한 것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에서 박 전 대표는 ‘돌려막기’ 운용에 대해 “자산관리회사의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자금운용의 모습으로 자금의 순환 운용에 해당하지 사기가 되는 돌려막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5년 2월부터 사업자금이 경색되면서 수익금 등을 정산해 주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사건도 병합됐다. 박 전 대표는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 조치가 예상되자 3억 7000여만 원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했다.

2심은 부실채권 매매대금 사기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일부 사기 범행과 병합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코로나에 한파까지... 텅 빈 명동

코로나19에 한파까지 겹친 10일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현대차 ‘농성’ 최병승씨 임금소송 항소심도 승소

“해고 무효”... 가산금은 인정 안돼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5) 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현대차로부터 2005년 2월 출입증을 회수당하고 사업장 출입도 금지됐다.

이에 최 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씨의 출입증을 회수하고 회사 출입을 금지한 사용자 측의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밀린 임금과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파견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최 씨는 현대차의 근로자이고, 출입을 금지한 것은 징계 절차 없이 이뤄진 부당한 해고라고 본 것이다.

또 현대차가 2005년 이후 밀린 최 씨의 임금뿐 아니라 ‘부당 징계로 판명된 경우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는 현대차의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기준에 따라 1심은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 원을 더해 현대차가 총 8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최 씨의 해고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현대차가 최 씨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액수를 4억6000여만 원으로 낮췄다.

김종용 기자 deep@

법원 “초등학교 옆 만화카페, 유해 시설 아니다”

“일부 폭력물 별도 규율로 관리... 운영금지 부당”

만화카페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한 만화대여업체 A 사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

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2019년 10월 A 만화카페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이전, 폐업,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만화카페가 학교 학생들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

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는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만화카페를 총괄 운영하던 직원 B 씨는 2018년 해당 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와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A 사는 회사로 신청인을 바꿔 2019년 9월 다시 제외 신청을 했으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A 사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만화나 만화대여업이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폭력성, 선정성이 수반되는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이고, 이는 해당 유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규율하면 족하다”며 A 사 손을 들어줬다. 김대영 기자 kdy@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팀빌딩, 도메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도심 일반도로 제한시속 50km·이면도로 30km〉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보행자 사망사고 줄인다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진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 속도 5030’ 정책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2016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도심속도 하향정책’이다.

국토부·교통안전공 중점 추진
法개정으로 4월 17일 전면시행
시범지역 사망사고 64% 줄어
“충돌 발생 시 작은 부상 목표”
노인사고 감소… 소음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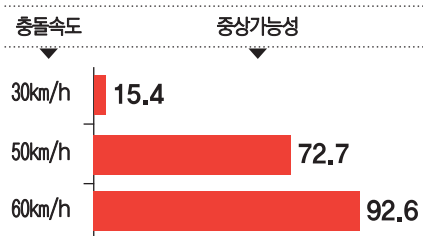
◇“빠른 이동성”→“안전” 우선 = ‘차량’ 중심의 이동성이 강조됐던 교통 환경에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빠른 이동성’보다 ‘안전’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9개국 중 칠레(3.8명)에 이어 두 번째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0명이다. 주요국을 보면 독일이 0.6명, 영국과 프랑스 0.7명, 일본 1.3명, 미국이 1.8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행 편도 1차로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에서 도시지역은 50m/h 이내(단, 필요 시 60km/h 적용)로 제한하도록 했다. 도시지역 외는 현행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설정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보행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실시 중인 2018년 12월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제한속도 ‘50’이라고 쓰인 안내판이 붙어 있다.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단위 : %)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운전자의 과속을 제재하는 정책이 아니라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그 부상 정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다. 2018년 공단에서 시행한 보행자 충돌실험 결과 시속 60km 충돌 시 충상 가능성이 92.6%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50km에선 72.7%, 30km에선 15.4%로 크게 낮아졌다. 실제로 덴마크와 독일은 도시부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뒤 교통사고가 각각 24%,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속도 5030의 시범 운영 지역인 서울 종로 및 전국의 68개 지역에서 교통사고의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서울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시행 전(2017년 7~12월)과 시행 후(2018년 7~12월)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보행사고 건수는 15.8%, 보행 부상자 수 22.7% 감소했고 전국 68개 지역에서 같은 기간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전체 사망자 수 63.6%, 치사율은 58.3% 각각 낮아졌다.

◇고령자 보행사고·소음 예방 효과적 =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시 특히 보행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

다. 2018년 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에 양보하는 비율이 낮으나, 제한속도가 낮은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또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1만1315명 중 43.9%(4972명)가 65세 이상 고령자다.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낮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주행속도별 운전자의 주변 상황 인지능력 변화를 보면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 시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은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주행속도가 감소할수록 인지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고령 보행자는 비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차량과의 거리가 더 가까이 있을 때도 횡단을 시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차량의 속도가 높을수록 비고령자와의 차이는 증가해 제한속도 하향이 고령자의 횡단판단 오류를 줄여줘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소음의 감소에도 효과적이다. 시속 60km로 주행할 때 평균 소음은 76.2dB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 환경기준’인 75dB을 초과한다. 반면,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에는 평균 소음이 73.6dB 이하로 소음 환경기준을 만족한다. 최근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확대 중인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이 유럽에서는 교통사고 감소가 아닌 주거지역 소음감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등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로의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체 우려…혼잡시간대 빨라 = 운전자들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경우 통행속도의 감소와 통행시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km)을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의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으며 서울과 부산에서 약 10km의 거리를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했을 때 택시요금의 차이는 200원 이하로 차이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종로(세종대로~동대문역방면) 구간에서는 제한속도 하향에도 불구하고, 낮(오전 8~11시)에는 오히려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3.3km 증가하기도 했다.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대해 대부분 국민이 찬성하고 있으나 운전자(78.0%)가 비운전자(90.4%) 대비 수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또 운전자의 60.5%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교통정체 발생이 우려했다. 이에 공단은 올해 운전자가 실제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체 길이, 정체유지 해소시간 등에 대한 교통정체 영향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도로공사 ‘안전띠 착용’ 이색 광고판 눈에 띄네

안성휴게소 등 4곳에 추가 설치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와 협업
뒷좌석 안전띠 착용 중요성 강조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에게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익광고 전문가인 이제석 씨와 손잡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전띠 착용 이색 홍보물을 설치했다. 홍보물은 차량을 연상하게 하는 바퀴 달린 광고판과 차량 충돌실험 이미지로 구성된 충돌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경부고속도로 옥산(부산방향), 신탄진(서울방향) 휴게소에 광고판을 시범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의견이 87%, ‘사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81%로 긍정적인 고객 평가가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안성(서울방향), 화성(목포방향), 여주(강릉방향), 횡성(인천방향) 휴게소 등 휴게소 4곳에 도 광고를 추가로 설치했다.



한국도로공사가 화성휴게소에 설치한 안전띠 착용 홍보물.

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와 함께 작품을 기획한 이제석 씨는 ‘권총굴뚝’ 작품으로 세계 3대 광고제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해외 유명 광고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공익광고 전문가다.

한편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291명으로 전체 사망자 1079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을 보면 뒷좌석은 64.98%로 90%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저조하다.

공사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안전띠의 필요성을 깨달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올해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녹색한우·농협목우촌 ‘대상’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녹색한우(한우·사진 위), 농협목우촌(한돈·아래)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을 받은 경영체 중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한우·돼지 브랜드가 참가해 명품브랜드인증 6개소, 종합상 12개소, 부문상 1개소 등 총 20개 브랜드를 시상했다.

3회 이상 경진대회 대상을 받은 명품브랜드 인증은 한우 부문에서 지리산순한우, 횡성축협한우, 참예우가 받았고, 돼지 부문에서는 포크밸리, 포크빌포도먹은돼지, 도드람한돈이 받았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물브랜드 경영체들의 생산비, 유통비용 절감 노력과 더불어 위생 안전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_{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_{yd}**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 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로,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이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정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544 정책사이렌 발신, 4년간 약속 지키겠다”

〈조정훈 의원 의원회관 의원실〉

‘양극화 해소’ 어젠다 던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車 개별소비세 인하’ 누구 위한 정책인가, 기득권 강화 불과
정부 정책 면밀히 검토 이의 제기...주4일제 본격 논의할 때

“주 4일제”, ‘544 정책 사이렌’, ‘국감 10대 과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집무실에 들어서면 눈에 확 들어오는 ‘의정활동 리스트’다. 벽을 가득 메울 만한 크기의 TV 모니터에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빼곡하게 나열돼 있다. 얼핏 봐도 조 의원의 최대 관심사는 ‘양극화 문제’임을 가늠할 수 있다. 과제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양극화와 관련 없는 것이 없다.

조 의원은 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복지뿐 아니라 경제 정책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는 대기업을 더 키우고, 없는 사람은 복지로 살리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 의원이 최근 꺼낸 카드가 ‘544 정책 사이렌’이다. 조 의원이 의원회관 544호에 머무는 4년 동안만큼은 정부 정책들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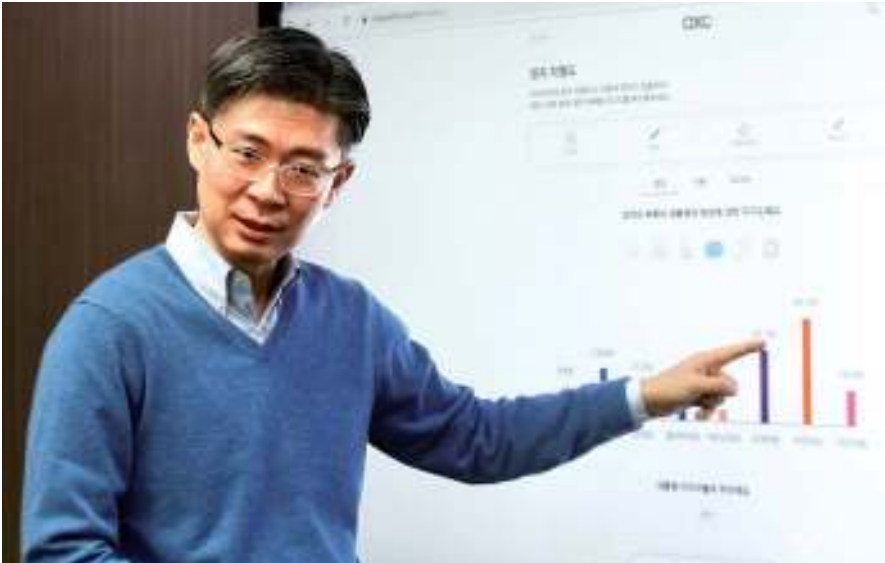
그 첫번째 대상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못 내는 소상공인들이 차 팔 생각을 하지

차 바꿀 생각을 하겠느냐”면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민은 운데간데없는, 노골적인 기득권 강화 경제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를 향한 빨간불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속적인 현미경 검증으로 정부가 정책을 낼 때마다 긴장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조 의원은 “앞으로 주요 정책이 나오면 정부부처는 물론 홍남기 부총리에게도 계속 발신할 것”이라며 “‘시대전환 544’에 걸리면 큰일이라는 인식과 함께 실질적 논의를 위해 끝까지 부러뜨리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 의원은 최근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주 4일제’라는 새로운 의제를 정치권에 던졌다. 그는 “재난시대 시작, 전염병 파피언스,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인류사회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재화 및 잉여 인간의 시대가 올 것”이라며 “그 전에 노동에 대한 재조명을 해보야 한다”고 주 4일제 도입 시점이 도달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은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 실업률 등 많은 문제들이 극심한 노동에서



조정훈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 도중 정치 지형도를 통해 시대전환 지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념별로는 중도층이 시대전환에 다소 몰려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나온다”면서 “의외로 주 4일제라면 월급 덜 받아도, 모든 여성정책 포기해도 좋다는 여성, 젊은이들이 많으며 많은 민주당, 국민의힘 등의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주 4일제 도입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2004년 주 5일 시행’ 당시 상황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이다. 아울러 주 4일제 도입에 앞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하고 있다.

‘기본소득’ 역시 조 의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대표 어젠다이다. 조 의원이 이번 국

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기본소득 제정법이다. 그는 “이 법안은 기본소득을 실현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집행할지 정책을 실험하지는 법안”이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됐으며 급한 불을 끄는 것뿐 아니라 회복, 보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정치권에 입성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 하고 싶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조 의원. 남은 임기가 기대되는 이유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정의선 양궁협회장 다섯번째 연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대한양궁협회를 4년 더 이끈다.

대한양궁협회는 8일 정 회장이 양궁협회 제 13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까지 4년이다. 이로써 정 회장은 양궁협회 회장을 다섯 차례 연임하게 됐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지만 재정 기여,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에서 기여도가 명확하면 그 이상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금융공익재단, 신상훈 대표이사장

금융산업공익재단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신 이사장은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다양한 근무 경험을 쌓은 뒤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고,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특임교수를 맡아왔다. 김범근 기자 nova@



이원태 인터넷진흥원장 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9일부터 3년간이다.

이 선임 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디지털 전환으로 기존 생보 수익+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양손잡이 경영’ 드라이브 거는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양손잡이 경영을 위한 출발점으로 올해를 ‘디지털시대 성공 기반 구축’의 해로 정했다.”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은 8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2021년 출발 전 사경영전략회의”를 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반한 올해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신창재 회장은 그간 강조해온 ‘양손잡이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손잡이 경영이란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 생명보험 비즈니스에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미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올해 경영방침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전통적 보험



사업의 수익성 개선,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준비, 왕성하게 혁신하는 부서문화 확산, 업계를 선도하는 소비자보호 실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산운용 대응 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사항들을 잘 실천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보생명은 양손잡이 경영을 통해 기업문화, 업무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식, 비즈니스 모델 등 회사 경영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또 관계사와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비즈니스를 혁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우리는 디지털보다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내 혈관엔 파란 피가 흐른다”...박찬호 키운 라소다 前 감독 별세

한국인 1호 메이저리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은사이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전설인 토미 라소다 전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감독이 93세로 별세했다. 다저스 구단은 성명을 내고 라소다 전 감독이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1976년 다저스 사령탑으로 부임한 라소

다 전 감독은 1996시즌 심장병으로 중도 사퇴할 때까지 21년간 다저스를 지휘했다. 그는 감독 재임 기간 다저스를 1981년과 1988년 월드시리즈 정상에 두 차례 올려놨고,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두 번 받는 등 MLB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라소다 전 감독이 다저스를 이끌며 거둔 성적은 21시즌 3040경기 1599승 2무 1439패다. 그는 “내 혈관에는 (다저스의



상징 색깔인) 파란 피가 흐른다”고 말할 정도로 다저스를 향한 애정이 깊었다.

라소다 전 감독은 1994년 다저스에 입단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 메이저리거가 된 박찬호를 지도하며 남다른 인연을 쌓기도 했다. MLB 투수로서 통산 124승을 달성한 박찬호는 자신을 몸심양면 지도한 라소다 전 감독을 양아버지로 여겼다.

부음

‘텐안먼’ 진압 거부 쉬친센 前 사령관

중국 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당시 강제 진압 명령을 거부해 옥고를 치른 쉬친센(徐勤先) 전 인민해방군 38군 사령관이 8일 별세했다. 고 홍콩 빈과일보 등이 10일 보도했다. 향년 86세.

빈과일보는 쉬 전 사령관이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莊)에서 8일 정오께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스자좡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봉쇄된 상태다. 빈과일보는 당국이 쉬 전 사령관의 장례를 위



인사

◆이투데이 △디지털미디어부장 배수경 △국제경제부 부장직무대행 배준호 △디지털미디어부 C&P팀장 이재영 △“ 사진영상팀장 고이란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유정기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오재철 △무역안보심사과장 이희재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고용정책실장 김영중 △실장급 전보 △노동정책실장 권기섭 △과장급 전보 △강원지청장 김환공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전자거래과장 석동수 △대리점거래과장 오재철 △가맹거래조사팀장 박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파견(인사교류) 이희재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기상청 차장 유희동 △기획조정관 장동언 △기후과학국장 이미선 △지진화산국장 김남욱 △광주지방기상청장 김금란

◆기술보증기금 △승진 △부서장 △미래혁신연구소 임선형 △지점장 △부산 허윤석 △수원 이의수 △인천중앙 김진일 △판교 박문수 △대전기술혁신센터 박연재 △광주기술혁신센터 변상수 △제주 신근철 △군산 권기현 △수석팀장 △경영기획부 김현 △감사실 박용주 △미래혁신연구

소 김대원 △연수파견 △남재현 △김정우 △조대홍 △김윤택 △전보 △본부장 △서울동부지역본부 유선열 △서울서부지역본부 장영규 △부산지역본부 장영수 △충청지역본부 이의장 △경남울산지역본부 오진석 △부서장 △벤처혁신사업부 정대영 △재기지원부 이장훈 △혁신투자실 권기철 △인재개발원 전하영 △지점장 △진천 소인섭 △경기문화콘텐츠진흥센터 김영훈 △대전문화콘텐츠진흥센터 김동기 △부산 기술혁신센터 구기회 △서울서부재기지원센터 이광규 △인천재기지원센터 김종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장 김수현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장 박인철

◆한국포스증권 △선임 △사업총괄(부사장) 이병렬 △본부장 보직 △경영전략본부(상무) 김승현 △영업본부(상무보) 남광현 △플랫폼사업본부(상무보) 제현성

◆암록코리아 △전무 김기연

◆한국신문협회 △승진 △경영사업부장 조문준 △경영사업부 차장 이동호 △전략기획부 차장 황현숙

◆샘터사 △사업총괄 부사장 이상준

◆경향신문 △편집부장 서영찬 △편집부 편집1팀장 정덕균 △“ 선임기자 정진호

◆아시아투데이 △편집국팩트체크센터장 이우섭 △“ 생활과학부장직무대리 최성록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드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고문

K방역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국내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오만으로 결국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개발 회사의 공급 계약 제안을 무시하였다. 여기에 지난번 사스 당시 도입한 백신 잉여분에 대한 감사원의 질책이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부추겨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완료 소식이 속속 들어오면서 선진 산업국은 물론 신흥경제국 간 도입과 접종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도입 계약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달 28일 부라부라 대통령이 나서서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에게 코로나 백신의 초기 공급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려 하던 2분기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 모더나 4000만 회, 코백스퍼실리티 2000만 회, 화이자 2000만 회, 안센 600만 회분을 합하여 총 1억600만 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발표하였다. 도입 시기는 영국 옥스퍼드대학팀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올해 1분기, 안센과 모더나는 2분기, 화이자는 3분기로 예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접종은 일러야 2월 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60% 수준이 되어야 집단방역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일러도 올해 2분기가 끝나는 7월이 되어야 제한적이나마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이 지난달 8일, 미국이 그다음 주인 14일 첫 접종을 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들이 일찌감치 방역에 필요한 백신을 확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백신 확보와 실제 접종은 늦어도 많이 늦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추적-치료의 3박자 방역체제를 자랑하던 K방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의 행동주의 의사결정론에 따르면 지나친 자신감은 미래의 사건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게 하여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K방역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국내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오만으로 결국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개발 회사의 공급 계약 제안을 무시하였다. 여기에 지난번 사스 당시 도입한 백신 잉여분에 대한 감사원의 질책이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부추겨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도적 이유에 방역에 대한 당국의 지나친 자신감이 더하여진 결과

라 해석된다.

한편, 경제활동의 자유를 이유로 제한적 방역만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의 창궐을 막지 못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지난달 말 우리의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일 때 미국은 평균 23만 명, 영국 3만4000명, 독일은 2만5000명의 확진자를 내었고 일본마저 2800명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도입에 나서면서 일찌감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것은 반대의 예가 된다. 자신감 부족이 코로나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게 되면서 백신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재 우리는 도입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면서 미국 및 유럽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 및 러시아산 백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코백스의 접종을 권장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백신 도입 지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애초에 도입 비용을 고려하느라 늦어졌다고 하다가 이제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소

기업 및 자영업자 구제로 나간 4차에 걸친 추경 비용을 고려해보면 정부의 이런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2030세대의 실망과 검찰개혁, 공수처 이슈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덮어주는 유일한 정책이었던 K방역이 역설적이게도 이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동안 K방역으로 4·13 총선의 압도적 승리와 정책 이슈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성공해왔던 현 집권당으로서 는 당황스럽게 그치없는 사태라고 생각할 것이다.

백신 도입은 늦었지만 접종을 빨리 시행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 해결책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보건당국(NHS)의 승인을 받아 1월 4일 첫 접종이 이루어졌고 인도에서도 6일 시작했다고 한다. 많이 늦었지만 먼저 도입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원료물질에 대한 우리 보건당국의 승인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후속 백신의 초기 도입과 접종을 추진하여, 집단면역 수준을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정책발언대

정현규

도드람양돈연구소장



지난해 10월에 화천의 2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 발생은 없지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이제 900건이 넘었다.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강원도 영월과 양양에서의 최근 발생은 많은 우려와 현재까지의 대책들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ASF의 대책은 양돈산업의 보호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멧돼지 차단과 농장 내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 방역이 중심이 되고 기타 관련 일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멧돼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ASF는 멧돼지와 집돼지를 오가는 질병으로, 농장의 피해를 줄이려면 멧돼지 개체수를 대폭 줄이고 멧돼지가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영월과 양양 확산으로 광역수렵장 운영과 수렵 등의 방법이 부작용이 있어 중단하지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나, 수렵 등

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개체수를 줄이려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서 문제들은 방법을 개선하며 해결해 나가면 된다. 방법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목표, 목적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

영월 발생 개체의 감염 추정일이 광역수렵장 개장일인 12월 14일보다 앞서는 12일인 점을 감안하면 광역수렵장 운영과 영월의 발생을 연관 짓는 것은 어렵다. 그간 광역수렵장에서 1000마리가 넘는 멧돼지가 포획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발생 지역, 예방 지역 등을 구분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양돈 밀집지역이나 양돈장 주변을 중심으로 개체수 감소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개체수 감소작업과 사체 수색 등에는 방역전문가도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파 우려도 대응해야 한다.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1000km 이상 울타리를 방지할 것이 아니

라 뚫려 있거나 훼손된 곳들을 보강하고, 설치 위치도 완전하게 밀폐시킬 수 있는 마을 뒤쪽으로 이동 등을 한다든지 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넓은 지역보다는 좁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멧돼지 개체수 저감이 필요하다.

둘째, 농가 스스로의 방역 실천이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다. 멧돼지의 개체수 감소를 비롯한 여러 대책들은 100% 질병의 차단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들이다. 최종 차단은 각 농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양돈인들에게 삶이고 전부인 농장이기에 스스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울타리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차량을 차단하고, 농장 입구에서 철저한 방역, 돈사 입구에서 신발 교체와 손씻기는 기본이다. 현장전문가, 경험 있는 농가, 정부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비장한 각오로 방역원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은 누가 도와주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나의

ASF 대책 재점검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투데이, 말투데이

☆ 권기옥(權基玉) 명언

“일본 왕궁을 폭파하겠어요.”

비밀결사대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평양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이끄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비행사. ‘한국 연감’을 발행해 최초의 여성 출판인으로 활약한 그녀는 공군 창설에 큰 공을 세웠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01~1988.

☆ 고사성어 / 식지동(食指動)

‘무엇이 먹고 싶을 때마다 집게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말. 음식이나 사물에 대해 욕심을 품는다는 뜻이다. 출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정(鄭)나라 영공(靈公)이 초나라 사람이 바친 큰 자라로 죽을 끓여 신하들에게 나눠 주려 했다. 송(宋)이 그걸 알고 자가(子家)와 영공을 배탈할 때 그의 들쭉날쭉한 손가락이 움직였다. 영공은 그에 게만 음식을 주지 않았다. 모욕감을 느낀 그는 술에 집게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빨았다. 불손한 태도를 본 영공이 그를 죽이려 했으나 불안해진 그가 영공을 먼저 죽였다.

☆ 시사상식/ 다크 넛지(dark nudge)

기업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태를 말한다. 선택을 반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노려 ‘첫 달 무료’로 결제를 유도한 뒤 자동결제 연장 통보 없이 매달 요금을 받는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오지랖이 넓다

무슨 일이나 나서서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오지랖’은 옷의 앞자락. 앞자락이 넓으면 안에 있는 다른 옷을 감싸버리는 것처럼 매사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을 비유한다.

☆ 유머 / 재판받는 잔소리

판사가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남편이 그렇다고 답하자 판사가 “바른 판단을 하려면 부인이 하는 잔소리를 알아야 하는데 다 말해 보세요”라고 했다. 놀란 남편의 대답. “5시간이나 되는 걸 다 들으실 수 있겠어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 범 근 금융부/nova@

탐욕이 빛은 믿음은 독이 되기 쉽다

있는 것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몰리면서 급기야 ‘빚투(빚내서 투자)’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위험성이 크다며 주식 투자에 난색을 표하던 ‘주린이(주식 초보자)’들도 과감한 배팅에 나서고 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들의 돈에 대한 욕

망을 이용한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지시(리딩)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가짜 금융투자업체(일명 리딩방)’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495건으로 2018년 119건, 지난해 139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2월 제보받은 495건을 포함해 민원 접수,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광고글을 적발했다.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97.7%(1080건)인데,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주식·선물거래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빼돌렸다.

주식이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늘고 있다. 탐욕은 사기성 짙은 꾀임도 천국으로 향하는 달콤한 유혹으로 변질시킨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눈 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부 (02)799-2648 IT중소기업부 (02)799-2646	 편집인 김상철 정치경제부 (02)799-2663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주필 추창근 사회경제부 (02)799-2612 부동산부 (02)799-2637 뉴스랩부 (02)799-2664	 편집국장 김중훈 국제경제부 (02)799-6741 산업부 (02)799-2644 사진팀 (02)799-6745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시간이야속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모든 것을 멈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2020년은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1년이다.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왕성한 열기를 억누르고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지식만은 아닐 텐데 안쓰럽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저학년(어린이)일수록 손해가 크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소식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가 늘었다는 것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1만3457건에서 2020년 1만4676건으로 9%(1219건) 증가했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했던 지난해 6월 이후 신고 건수는 급증했다. 1~4월 900건대에 머물던 신고 건수는 5월 1000건을 넘어섰고 6월에는 1841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7~11월 평균 1602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가장 내 발생은 1만2178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8건이 부모에 의해 집안에서 벌어졌다는 의미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른들의 오만함이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정인 양 사건이 더 가슴 아픈 이유다.

데스크칼럼

장 효 진

사회경제부장



오랫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자 학습 격차와 함께 발달 격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3년생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하고 익혀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길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은 학교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감각이나 정서 발달이 이뤄진다. 그러나 혼자 원격수업을 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정상적인 교육 환경은 낯설다. 질문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얘기가 교사들로부터 들린다.

발달 격차가 더 위험한 이유는 적합한 때가 있기 때문이다.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학습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이 바뀌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은 다르다.

정서적인 발달을 이루려면 규칙적인 학교생활과 그 속에서 또래의 아이들과 어

울리며 여러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며 극복하는 반복적인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 누가 가르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걸으로 드러난 학습 격차 문제 해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1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질 좋은 원격수업을 얘기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선 등교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간과할 수도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차등 등교가 방법일 수 있다. 아이들을 나누고 또 나눠 한 반에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철저한 방역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등교를 위한 아이들의 건강 체크를 학부모들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처럼 우리 아이들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아이와 교육은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다.

js62@

노트북을 열며

곽도흔

정치경제부 차장



최근 신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임기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진단하는 기사를 썼다. 전문가 중에서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과 통화를 했을 때 최 소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쓸데없이 수십조 원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경제정책을 주로 다루다 보니 이 얘기는 기사에서 뺐지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 주제로 칼럼을 쓰기로 한 이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예산을 합치면 지난해 기준 45조695억 원이라고 한다. 2017년 27조8800억 원에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수십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은 무용지물이었다. 지난해 드디어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자연 인구 감소가 이뤄졌다. 사상 처음이다. 이러다가는 외국인의 추가 유입 없이는 국가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정부 대책을 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달

돈 쥐도 애 안 낳는다

6일까지 충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5번의 회의를 열었다. 그 동안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결정됐다. 그 결과 ‘K방역’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졌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코로나19 방역에 선방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당장 저출산 비상경제중대본을 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아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해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급과 같은 저출산 대책으로는 저출산을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

저출산 대책을 보면 자꾸 아동수당(30만 원) 같은 현금을 지급한다. 돈을 주면 애를 낳겠지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다. 최용식 소장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사회심리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심리학은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면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다리에 자살예방문구를 써놔더니 오히려 자살이 더 늘어났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막연히 자살을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자살예방문구를 만들

었지만, 역효과가 난 셈이다. 반대로 공중화장실 변기에 파리를 그려 넣었더니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량이 크게 줄었다. 사회심리학을 정책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저출산을 막는다고 출산대책을 만드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최근 한 지자체가 첫째를 출산하면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셋째를 출산하면 그 1억 원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 화제가 됐는데 아마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단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 격인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혀를 찼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복지국가의 대표인 스웨덴이 집단면역을 추구했다가 많은 사망자를 남기고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한다고 믿은 국가들의 모습이다. 공무원 보고서에는 꼭 해의 사례를 넣는다. 앞으로는 이 보고서에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넣으면 어떨까. 공무원들이 더 발품을 팔아야겠다.

soqood@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 제기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상조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한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에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집행되기 시작한다.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은 11일부터 풀린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이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으로의 방역 및 경제상황, 피해 정도를 보가며 꼭 필요할 때 결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에 대한 ‘위로금’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혈세(血稅)로도 모자라 국민 부담인 막대한 나랏빚을 내야 가

능하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선심인 것처럼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에게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 원이 지급됐다. 공무원 등 안정된 임금을 받거나, 코로나 사태의 호황업종에서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계층에도 구분없이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씩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이 새로운 소비로 이어진 효과는 30% 수준이었고, 음식점·레저·관광·이미용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면(對面) 업종으로는 별로 흘러들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다.

그런데도 국가 재정상황은 알 바 없다는 식이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뿐이다. 올해 예산은 이미 558조 원의 초(超)슈퍼 규모다.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 원 이상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금년 47.3%로 치솟는다. 또 빚을 더 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이 비율이 50%를 넘겨 재정위기에 빠질 공산이 크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 종사자들과 저소득층, 고용취약 계층, 실직자 등에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 KDI는 10일 내놓은 ‘1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업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더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한 재원이 최대한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쓰여야 할 이유다.

미리 보는 한 주

작년 취업자 감소 20만명 웃돌까

이번 주에는 새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공개된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1일(월) 2020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11월엔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9138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5932억 원)보다 54.0%(3206억 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매달 지급액이 1조 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어 13일(수)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내놓는다. 지난해 1~11월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18만1000명 줄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지난해 11월 2단계, 12월 8일 2.5단계로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을 포함한 연간 취업자 감소 폭은 2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초기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가장 큰 취업자 감소다.

한은 금통위는 15일(금)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위원 만장일치 동결이 유력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작년 7, 8, 10, 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다섯 번째 동결 및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기재부는 지난해 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11월 중순 이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과 11월의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보다 진단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압도적 1위 LG 올레드 TV

〈2017~2019 Omdia TV Shipment 기준 글로벌 OLED TV 판매량유율 1위, Omdia는 해당 수치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올레드만이 가능한 압도적 차이

2020 CES 6년 연속 최고 TV 선정

EG, G6, W7, C8, R9, CX

2020 세계 2대 / 2019 세계 4대 디자인상 석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DEA (19,20), iF 디자인 어워드, 굿디자인 어워드 (19)

2019 TV 비교 평가 올해의 최고 TV

HDTVtest Shootout / 65C9

2019 유럽 10개국 최고 TV 1위

유럽 10개국 소비자 매거진 평가 1위 / 65C9

글로벌 TV 16개 제조사, OLED 선택

2020년 11월 기준



LG 시그니처 올레드 R